

뜨락 : ‘뜰’의 북한 방언. 표준어X

저만치 :

(명사) 저만큼 되는 데

(부사) 떨어진 거리가 저만큼 되는 데에서

봉우리 : 산봉우리의 준말.

cf. 봉오리 : 꽃봉오리의 준말

가르마 : 이마에서 정수리까지의 머리털을

갈라 빗을 때 생기는 금

cf. 가리마 : 부녀자들이 예복을 갖추어 입을

때 큰 머리 위에 덮어 쓰던 검은 헝겊

빈말 : 실속 없이 헛된말, 속에 없는말

허언(虛言) : 실속이 없는 빈말, 거짓말

놀언(訥言) : 더듬거리는 말

실언(失言) : 실수로 잘못 말 함. 또는 그렇게 한 말

독언(獨言) : 혼잣말

망언(妄言) : 이치나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말 함. 또는 그말

어슴푸레 : 기억이 뚜렷이 떠오르지 않고

몹시 흐리마리한 모양

작은 말은 ‘어슴푸레’.

본치 : 남의 눈에 띄는 태도나 겉모양

생게망게 : 갑자기 벌어진 뜻밖의 일이

영뚱하고 터무니없는 모양

재겹게: 조금 지겹게

맞갹게 : 마음이나 입맛에 꼭 맞게

맥쩍게 : 심심하고 재미가 없다.

열없고 쑥스럽다.

맨드리 : 물건이 만들어진 모양새

손방 : 아주 할 줄 모르는 솜씨

허수롭다: 짜임새나 단정함이 없이 느슨한 데가 있다.

철겹다: 제철에 뒤져 맞지 아니하다.

열없다: 조금 겸연쩍고 부끄럽다. 성질이 다부지지 못하고 뽀다. 담이 작고 겁이 많다.

속없다: 생각에 쫓대가 없다. 악의가 없다

거침없다: 일이나 행동 따위가 중간에 걸리거나 막힘이 없다

간데없다: 갑자기 자취를 감추어 온데간데가 없다

관계없다: 서로 관련이 없다. 염려할 것 없다

땃바람 : 서슴지 않고 당장. 일이나 때를 당해 단 한 번

흰소리 : 터무니없이 자랑으로 떠벌리거나 거드럭거리며 허풍을 떠는 말.

지청구 : 꾸지람(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는 말).

까닭 없이 남을 탓하고 원망함.

잡도리 : 단단히 준비하거나 대책을 세움. 또는 그 대책. 잘못되지 않도록 엄하게 단속하는 일.

국으로 : 제 생긴 그대로. 또는 자기 주제에 맞게.

우수리 : ‘물건 값을 제하고 거슬러 받는 잔돈’이나 ‘일정한 수나 수량에 차고 남는 수나 수량’을 의미하는 우리말.

추호: 가을에 짐승의 털이 아주 가늘다는 뜻으로, 아주 적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간발: 발을 한 번 떼어 놓는 걸음이 라는 뜻으로, 아주 잠시 또는 적음

금자탑 : 금(金)자 모양의 탑이라는 뜻으로, 뛰어난 업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우골탑 : 가난한 농가에서 소를 팔아 마련한 학생의 등록금으로 세운 건물이라는 뜻으로, 대학을 속되게 이르는 말

아성 : 아(牙)는 대장의 잇발. 주장(主將)이 거처하는 성

아주 중요한 근거지

각축 : 서로 이기려고 덤벼들

기탄 : 어렵게 여겨 꺼림

추출: 전체 속에서 물건, 생각, 요소 따위를 뽑아냄

축출 : 쫓아내거나 몰아냄

딱히 : 정확하게 꼭 집어서

상념(想念) : 마음속에 품은 여러 가지 생각.

노루잠(토끼잠, 꿩이잠) : 깊이 들지 못하고 자꾸 놀라 깨는 잠

새우잠 : 불편하게 자는 잠

갈치잠 : 비좁은 방에서 여럿이 모로 끼어 자는 잠

나비잠 : 갓난아이가 두 팔을 머리 위로 벌리고 자는 잠

꽃잠 : 깊이 든 잠

고주박잠 : 등을 구부리고 앉아서 자는 잠

그루잠 : 깨었다가 다시 든 잠

차렵이불 : 솜을 얇게 두어 지은 이불

풀무질 :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인 풀무로 바람을 일으키는 일

푸네기 : 가까운 제살불이를 낚잡아 이르는 말

* 푸네기 : 경험이 없어서 일이 서투른 사람

줄레줄레 : 해지거나 헝클어져 너절하게 잇달리어 있는 모양

짹짹미 : 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하는 약속이나 수작

* 짹짹미 : 짹이 나는 대로 그때그때

두서 : 일의 차례나 갈피

좌천 : 낮은 관직이나 지위로 떨어지거나 외직으로 전근 됨

억장 : 억 만큼의 길이. 극심한 슬픔이나 절망 따위로

몹시 가슴이 아프고 괴롭다.

도탄 : 친구렁에 빠지고 숯불에 탄다는 뜻. 몹시 곤궁하여 고통스러운 지경. 예) 도탄에 들다, 도탄에 빠뜨리다
서광(曙光): 새벽에 동이 틀 무렵의 빛. 기대하는 일에 대하여 나타난 희망의 징조

백미(白眉): 중국 촉한(蜀漢) 때 마량(馬良)의 다섯 형제가 모두 재주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눈썹 속에 흰 털이 난 량(良)이 가장 뛰어났다는 데서 유래한 말로, ‘백미이다, 백미로 꼽다.’

회자(膾炙): 회와 구운 고기. 칭찬을 받으며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림

관건(關鍵): 문지방과 자물쇠. 어떤 사물이나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

풍운(風雲): 바람과 구름. ‘풍운의 꿈’으로 관용적으로 쓰이면 ‘풍운을 타고 큰일을 이룩하려는 뜻

굴지(屈指) : 무엇을 셀 때, 손가락을 꼽음. 매우 뛰어나 수많은 가운데서 손꼽힘. 예) 굴지의 재벌, 굴지 가는 부호들, 굴지에 드는 포목전

점철(點綴) : 흐트러진 점이 서로 이어짐. 관련 있는 상황이나 사실 따위가 서로 이어짐.

난맥 : 이리저리 흩어져서 질서나 체계가 서지 아니함. 또는 그런 상태. 어지럽게 뛰는 맥.

비등(沸騰) : 화학에서 액체가 끓어오름. 액체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기화. 물이 끓듯 떠들썩하게 일어남.
알력(軋轢) : 수레바퀴가 삐걱거림.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사이가 안 좋거나 충돌. 예) 알력이 심하다, 알력이 끊일 날이 없다

파경(破鏡) : 깨진 거울. 이지러진 달 비유. 사이가 나빠져 부부가 헤어짐.

동량(棟樑) : 기둥과 들보

심금(心琴) : 마음의 거문고, 감동하며 마음이 울림

정곡(正鵠) : 과녁의 한가운데(사전적 의미), 가장 중요한 요점이나 핵심(확장적 의미)

위상(位相) : 자리와 모양(한자 의미),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확장적 의미)

맞잡이 : 서로 대등한 정도나 분량

추렴 : 여럿이 각각 얼마씩의 돈을 내어 거둬.

해찰 :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짓을 함.

우수리 : 물건 값을 제하고 거슬러 받는 잔돈.

째자미 : 남모르게 자기들끼리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

째 : 손을 떼거나 다른 일에 손을 댈 수 있는 겨를

사뭇 : 거리낌 없이 마구, 내내 끝까지, 아주 탄판으로, 마음에 사무치도록 매우

내쳐 : 어떤 일 끝에 더 나아가, 줄곧 한결같이

바투 : 두 대상이나 물체의 사이가 썩 가깝게, 시간이나

길이가 아주 짧게

지레 :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또는 어떤 기회나 때가 무르익기 전에 미리

재우 : '매우 재게' 라는 뜻을 지닌 부사인데, 이 때의 '재다'는 동작이 재빠르다는 의미이다.

두각 : 짐승의 머리에 있는 뿔. 뛰어난 학식이나 재능

유수 : 손뼉을 만큼 두드러지거나 훌륭함

비위 : 지라와 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일을 삭여 내거나 상대하여 내는 성미

사족 : 두 팔과 두 다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못 쓰다와 결합하여 무슨 일에 반하거나 혹하여 꼼짝 못 하다라는 뜻이다.

초미(焦眉): 눈썹에 불이 붙었다 매우 급함

슬하(膝下): 무릎 아래. 버이나 조부모의 보살핌 아래. 주로 부모의 보호를 받는 데두리 안.

모골(毛骨): 털과 뼈.

비견(比肩): 어깨를 나란히 한다. 앞서거나 뒤서지 않고, 낮고 못할 것이 없이 정도가 서로 비슷함을 이르는 말.

면목(面目): 얼굴의 생김새 얼굴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

면모 : 얼굴의 모양. 사람, 사물의 겉모습 또는 됃됨이.

간발(間髮): 터럭 사이의 거리, 즉 대단히 차이가 적음을 뜻한다. ‘아주 잠시’ 또는 ‘아주 적음’을 이르게 됄.

관건(關鍵): 문지방과 자물쇠. 어떤 사물이나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

계륵(鷄肋): 닭의 갈비. 그다지 큰 소용은 없으나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

* 몸이 약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가리킬 때 사용

장족(長足): 기다랄게 생긴 다리라는 뜻으로, 사물의 발전이나 진행이 매우 빠름을 이름.

석권 : 돛자리를 만다. 빠른 기세로 영토를 휩쓸거나 세력 범위를 넓힘

추호 : 가을에 짐승의 털이 아주 가늘다. 아주 적거나 조금인 것.

도탄 : 친구렁에 빠지고 숯불에 탄다. 몹시 곤궁하여 고통스러운 지경

숙환 : 오래 묵은 병. ‘오래된 걱정거리’

산적: 산처럼 일이 쌓여 있다는 뜻.

난색(難色) : 꺼리거나 어려워하는 기색

막간(幕間) : 어떤 일의 한 단락이 끝나고 다음 단락이 시작될 동안. 막(幕)과 막(幕)사이로 이해

이문(移文) : 이익이 남는 돈.

강단(剛斷) : 굳세고 곳곳하게 견디어 내는 힘

자웅(雌雄) : 본래 암컷과 수컷을 아울러 이르는 말.

승부, 우열, 강약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며

주로 '자웅을 겨루다, 자웅을 다투다.' 로 쓰인다.
 사족(蛇足) : 뱀의 발. 화사첨족(畫蛇添足)의 준말 (쓸데 없는 군것질을 하여 도리어 잘못되게 함) 주로 '사족을 달다, 사족을 붙이다.' 정도의 용례로 사용된다.
 산실(産室) : 해산하는 방. 어떤 일을 꾸미거나 이루어 내는 곳. 또는 그런 바탕
 선풍(旋風): 회오리바람. 돌발적으로 일어나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
 골치 : '머리' 혹은 '머릿골'을 속되게 이르는 고유어.
 부아 : 노엽거나 분한 마음. '허파'를 가리킨다.
 라는 뜻을 지니는데, 이때의 '오금'은 '무릎의 구부러지는 오목한 안쪽 부분'을 가리킨다.
 염치(廉恥):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영고 : '번성함과 쇠퇴함'
 전도요원(前途遙遠) : 가야할 길이 아득히 멀,
 장래가 창창하게 멀

미증유: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음
 전인미답: 이제까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함, 이제까지 아무도 손을 대어 본 일이 없음
 전대미문: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일
 전무후무(=공전절후):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음
 파:천황(破天荒): 이전에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처음으로 해냄

품의(稟議) : 웃어른이나 상사에게 말이나 글로 여쭙어 의논함
 어용(御用) :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에 영합하여 행동
 채근 : 식물의 뿌리를 캐냄이라는 뜻을 지니며, 어떤 일의 내용, 원인, 근원 따위를 캐어 알아냄, 어떻게 행동하기를 따지어 독촉함
 탁견 : 두드러진 의견이나 견해를 의미, 비슷한 말로 탁식이라는 말이 있다.
 힐문 : 묻다 따지다 꾸짖다의 뜻, 트집을 잡아 따져 물음의 의미
 사단 : 사건의 단서 또는 실마리.

아리다 : 허끝을 찌를 듯이 알알한 느낌이 있다.
 * 어리다¹ : 1.눈에 눈물이 조금 과다. 2. 어떤 현상, 기운, 추억 따위가 배어 있거나 은근히 드러나다.
 이지러지다 :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없어지다. 달 따위가 한쪽이 차지 않다.
 스러지다 : 형체나 현상 따위가 차차 희미해지면서 없어지다. 불기운이 약해져서 꺼지다.
 어우러지다 : 여럿이 조화를 이루거나 섞이다. 여럿이 자연스럽게 사귀어 조화를 이루거나 일정한 분위기에 같

이 험싸이다.
 호젓하다 : 후미져서 무서움을 느낄 만큼 고요하다. 매우 홀가분하여 쓸쓸하고 외롭다.
 곰살갑다 : 성질이 보기보다 상냥하고 부드럽다
 희한하다 : 매우 드물거나 신기하다
 을씨년스럽다 : 날씨가 분위기가 몹시 스산하고 쓸쓸한 데가 있다.
 남우세스럽다 : 남에게 놀림과 비웃을 받을 듯하다
 해사하다 : 얼굴이 희고 곱다랄다
 괄괄하다 : 목소리 따위가 굵고 거세다
 압삽하다 : 사람이 얇은 껍을 쓰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태도가 있다
 머쓱하다 : 무안을 당하거나 흥이 꺾여 어색하고 열없다
 괴괴하다 : 쓸쓸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고요하다
 득달같다 : 잠시도 늦추지 않다
 종요로운 :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매우 긴요한
 의용 : 겉으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영금

불가해 (不可解)하다 - 이해할 수 없다

오지랖 : ‘웃웃이나 윷도리에 입는 겂옷의 앞자락’을 가리키는 말로서, ‘오지랖이 넓다’는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이나 참견하는 면이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며, 드물게는 ‘염치없이 행동하는 면이 있다’의 뜻으로도 쓰인다.

변죽 : 그릇이나 세간, 과녁 따위의 가장자리를 뜻하는 말로서, “화살이 과녁의 변죽을 꿰뚫었다.”, “그는 젓가락으로 상의 변죽을 두드리며 흥을 돋우었다.”와 같이 쓸 수 있다.

물큰 : 냄새 따위가 한꺼번에 확 풍기는 모양

똥기 : 채 익지 않은 과일

애오라지 : 겨우

한소꿈 : 한 번 끓어오르는 모양

아람 : 밤 따위가 잘 익어 저절로 떨어질 정도 된 상태

시방 : 지금

먹통 : 멍청이를 놀림조로 이르는 말

식겁하다 : 뜻밖에 놀라 겁을 먹다

욕보다 :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 몹시 고생스러운 일을 겪다. 강간을 당하다.

매조지: ‘일의 끝을 단단히 단속하여 마무리 하는 일’

마수걸이: (ㄱ)맨 처음으로 물건을 파는 일. 또는 거기서 얻은 소득

무녀리: (ㄱ)한 태에 낳은 여러 마리 새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새끼. (ㄴ)말이나 행동이 좀 모자란 듯이 보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들머리: 들어가는 맨 첫머리

만물: 푸성귀, 과일, 곡식, 해산물 따위에서 그래 들어

제일 먼저 거두어 들이는 것.

소쿠리(우리말) :대나 싸리로 엮어 테가 있게 만든 그릇
길췌 : 길의 가장자리. 풀이 나 있는 곳을 가리킨다.
시울 : 약간 굽거나 흰 부분의 가장자리. 흔히 눈이나 입의 언저리를 이룰 때에 쓴다.

거스러미

㉠ 손발톱 뒤의 살 껍질이나 나무의 결 따위가 가시처럼 얇게 터져 일어나는 부분
㉡ 기계의 부품을 자르거나 깎은 뒤에 제품에 아직 그대로 붙어 남아 있는 찌발
컷전 : 컷바퀴의 가장자리
가넉 = 가장자리

장사진 (1) 많은 사람이 줄을 지어 길게 늘어선 모양을 이르는 말. (2) 예전의 병법에서, 한 줄로 길게 벌인 군진의 하나. ‘장사(長蛇)’, ‘크고 긴 뱀’

긫소리 :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긫소리’는 띄어 써야 한다.

흰소리 : 터무니없이 자랑으로 떠벌리거나 거드럭거리며 허풍을 떠는 말

불멘소리 : 서운하거나 성이 나서 통명스럽게 하는 말투
신소리 : 상대방의 말을 슬쩍 받아 엉뚱한 말로 재치 있게 넘기는 말

입찬소리: 자기의 지위나 능력을 믿고 지나치게 장담하는 말

웃웃음 : 여러 사람이 함께 웃음. ‘팔다’와 함께 쓰여

여러 사람에게 덧없이 짓는 웃음

선웃음 : 우습지도 않는데 꾸며서 웃는 웃음

애오라지 : 오로지

길쳐 : 가는 길의 근처

들마 : 가게 문을 닫을 무렵

달포 :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하오 : 오후

어스름 : 조금 어두운 때

해포 : 한 해가 조금 넘는 동안

물큰(물큰) : 냄새 따위가 한꺼번에 확 풍기는 모양.

줄지 : 갑작스러운 판국

만반 : 마련할 수 있는 모든 것

공전 : 비교할 만한 것이 이전에는 없음

와중 : 흐르는 물이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일이나 사건 따위가 시끄럽고 복잡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다락같다(형용사) / 다락같이(부사)’ : ‘(ㄱ)물건 값이 매우 비싸다, (ㄴ)덩치나 규모 정도가 매우 크고 심하다’

무람없이: 예의를 지키지 않아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 없이.

굴뚝같이: 바라거나 그리워하는 마음이 몹시 간절하게

예제없이: 여기나 저기나 구별 없이.

잔밟다 : 몹시 알밟다.

가볍하다 : 조금 가벼운 듯하다.

알망곳다 : 성질이나 태도가 괴상하고 까다로워 알미운 데가 있다.

밟살밟다 : [...이] ‘밟살스럽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뇌골스럽다 : 보기에 아니꼽고 알미우며 못마땅한 데가 있다.

미쁘다 : [...이] 믿음성이 있다

거나하다 : 술 따위에 어지간히 취한 상태에 있다.

몽근하다 : 세지 않은 불기운이 끊이지 않고 꾸준하다.

알싸하다 : 매운맛이나 독한 냄새 따위로 콧속이나 혀끝이 알알하다

수더분하다 : 성질이 까다롭지 아니해 순하고 무던하다.

득달같이: 잠시라도 늦추지 아니하다.

(용례* 득달같이 달려오다 / 득달같이 해치우다)

딴통같이: 전혀 엉뚱하게

억척같이: 몹시 모질고 끈덕지게

cf) 억척(명사) : 일을 해 나가는 태도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몹시 모질고 끈덕짐

철석같이(한자어): 철(鐵)+석(石) = 쇠와 돌 / 매우 굳고 단단한 것

다락같이: 물건 값이 매우 비싸게 / 덩치나 규모 정도가 매우 크고 심하게

애오라지 : ‘겨우’, ‘오로지’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다.

허방 : 땅바닥이 움푹 패어 빠지기 쉬운 구덩이를 이르는 말이다.

고샅 :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또는 골목 사이, 좁은 골짜기의 사이를 이르는 말

불굴(不屈) : 온갖 어려움에도 굽히지 아니함

절호(絶好) : 무엇을 하기에 기회나 시기 따위가 좋음

단장(斷腸) :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함

단장(短杖) : 짧은 지팡이

단장(端裝) : 단정하게 차림

단장(團長) : ‘단’자가 붙은 단체의 우두머리

유수(有數(셈 수)): 손꼽을 만큼 두드러지거나 훌륭함

낙점(落點) : 여러 후보가 있을 때 그중에 마땅한 대상을 고름
낭보(朗報) : 기쁜 기별이나 소식
치성(致誠) : 있는 정성을 다함, 또는 그 정성
추서 : 죽은 뒤에 관등을 올리거나 훈장 따위를 줌
재원 : 재주가 뛰어난 젊은 여자
임종 : 1. 죽음을 맞이하다. 2. 부모가 돌아가실 때 그 곁을 지키고 있음
보무 : 위엄 있고 활기 있게 걷는 걸음
봉정 : 문서나 문집 따위를 삼가 받들어 올림

보전(保全) :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
오악(五嶽) : 사람의 얼굴에서 이마, 코, 턱, 좌우 광대뼈를 이르는 말.
비견(比肩) : 앞서거나 뒤서지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으로, 낮고 못할 것이 없이 정도가 서로 비슷함
실각(失脚) : 발을 헛디딤, 또는 일에 실패하여 있던 지위에서 물러남
장물(贓物) :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을 뜻하는 법률 용어.
폭등(暴騰) : 물건의 값이나 주가 따위가 갑자기 큰 폭으로 오름
특기(特記) : 특별히 다루어 기록함
위생(衛生) : 건강에 유익하도록 조건을 갖추거나 대책을 세우는 일

훼방=자방, 자훼
객쩍은 : 행동이나 말, 생각이 쓸데없고 싱겁다.
와중 : (흔히 ‘와중에’꼴로 쓰여) 일이나 사건 따위가 시끄럽고 복잡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철철하다 : 주접이 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단정하다.
성질이나 일 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다.

철석 : 쇠와 돌처럼 굳고 단단함.
입추 : 송곳을 세움
[관용구/속담] 입추의 여지가 없다.
송곳 끝도 세울 수 없을 정도라는 뜻으로, 발 들여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꼭 들어찬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소정 : 정해진 바
횡사 : 뜻밖의 재앙으로 죽음
절찬리 : 지극한 칭찬을 받는 가운데
거저 :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혜살 : 남의 일에 짓궂게 훼방을 놓는 짓
혜살을 놓다, 혜살을 부리다, 혜살을 치다,
얼추 : 어떤 기준에 거의 가깝게

일루(비표준어) : ‘이리로’의 구어적 표현
인제 : 이제에 이르러
퍼뜩 : 어떤 생각이 갑자기 아주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모양
난삽(難澁) : 글이나 말이 매끄럽지 못하면서 어렵고 까다롭다
씩수 : 어떤 일, 사람이 앞으로 잘될 것 같은 낌새나 징조들머리 : 들어가는 맨 첫머리
높직이 : 높직하다+ 부사 파생 접사 ‘-이’. 표준어
노랑 : 느릿느릿
저간(這間) : 요즘.
올러대다 : 위협적인 언동으로 올려서 남을 억누르다
고깝다 : 섬섬하고 야속하여 마음이 언짢다
가탈(가탈) : 일이 순조롭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조건’과 ‘이리저리 트집을 잡아 까다롭게 구는 일’
앙짜 : 옛되게 점잔을 빼는 짓 ㉠ 앙짜를 부리다/쓰다
성질이 간작간작하고 암상스러운 사람을 놀림
부아 : 노엽거나 분한 마음
말미 : 일정한 직업이나 일 따위에 매인 사람이 다른 일로 말미암아 얻는 겨를
결판 : 어떤 일이나 물건 따위가 아주 망가져서 도무지 손을 쓸 수 없게 된 상태
cf. 결단 :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림
자청(自請) : 어떤 일에 나서기를 스스로 청함.
자처(自處) :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여겨 그렇게 처신하다.

임대 : 대가를 받고 자기 물건을 남에게 빌려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게 하는 일(빌려 주다).
임차 : 요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것(빌리다).

결부(結付) : 일정한 사물이나 현상을 서로 연관시키다.
불과(不過) : 그 수량에 지나지 아니함
숙환(宿患) : 오래 묵은 병
하필(何必) :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꼭
단번(單番) : 단 한번
대체(大體) : ‘도대체’와 같이 부정문과 쓰이면 ‘유감스럽게도 전혀’의 뜻을 가진다.
가관(可觀) : 꼴이 볼만하다. 남의 언행이나 어떤 상태를 비웃는 뜻으로 이르는 말.
경질(更迭) : 직위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꿈
가령(假令) : 가정하여 말하여
제고(提高) : 쳐들어 높임
(생산성의 제고 / 능률의 제고 / 이미지 제고)
자청(自請) : 어떤 일에 나서기를 스스로 청함
한담(閑談) : 심심하거나 한가할 때 나누는 이야기.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이야기.

예방(禮訪): 예를 갖추는 의미로 인사차 방문함.

안팍 : 안팍 두 쪽으로 이루어지는 물건에서 안에 있는 쪽, 나이나 거리 따위가 일정한 수효에 미치지 못한 범위

대뜸 :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곧

거저 :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반절 : 折半(절반)과 같은 의미

모로 : 비껴서, 대각선으로, 옆쪽으로

울력다짐 : 울력하여 그 기세로 일을 해치우는 행동

푼수 : 얼마에 상당한 정도. 상태나 형편.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너울가지 : 남과 잘 사귀는 솜씨

짐짓 :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으나 일부러 그렇게. 과연.

탈고 : 원고 쓰기를 마침

야무지다->사람에게만 씀.

옹골차다, 알차다, 야물다, 실하다, 실팍하다 (유의어)

의태어 (어휘의 문맥적 의미)

상글상글 : 눈과 입을 귀엽게 움직이며 소리 없이 정답게 자꾸 웃는 모양을 가리킴

바락바락: 이 나서 잇따라 기를 쓰거나 소리를 지르는 모양

자근자근: 조금 성가실 정도로 자꾸 은근히 귀찮게 구는 모양

경중경중 : 긴 다리를 모으고 계속 힘 있게 솟구쳐 오르는 모양

열키설키 : 관계나 일, 감정 따위가 복잡하게 얽힌 모양.

딸깍딸깍 : ‘딸까닥 딸까닥’의 준말. 작고 단단한 물건이 자꾸 맞부딪치는 소리.

모짝모짝 : 한쪽에서부터 차례로 모조리

섬벅섬벅 : 크고 연한 물건이 잘 드는 칼에 쉽게 자꾸 베어지는 소리나 모양

헤실헤실 : 어떤 물체가 단단하지 못하여 부스러지거나 헤지기 쉬운 모양

할금할금 : 결눈으로 살그머니 자꾸 할거 보는 모양

조롱조롱 : 작은 열매 따위가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이나 아이가 많이 딸려 있는 모양

암니옴니(옴니암니) : 자질구레한 일에 대해서까지 좀스럽게 셈하거나 따지는 모양을 이르는 말이다.

옥실옥실- 유별나게 여럿이 한데 모여 오글거리는 형상. 까칠까칠- 몸이 야위어 살갗이 매우 거칠고 기름기가 없는 상태.

몽텅몽텅- 끓어서 뭉쳐 놓은 듯 짙은 것.

곰슬곰슬- 털이나 실 같은 것이 움츠러들어서 고불고불

한 모양.

자글자글- 거의 찾아진 물기나 기름기가 소리를 내며 끓는 소리.

몽글몽글- ‘덩이진 물건이 말랑말랑하고 몹시 매끄러운 느낌

새록새록- ‘새로운 물건이나 일이 잇따라 생기는 모양,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거듭하여 새롭게 생기는 모양, 또는 잠든 어린아이가 숨설 때 나는 소리

설레설레: 큰 동작으로 몸의 한 부분을 가볍게 잇따라 가로 흔드는 모양

슬쩍슬쩍: 남의 눈을 피해 잇따라 재빠르게 행동하는 모양

포슬포슬: 덩이진 가루 따위가 물기가 적어 엉기지 못하고 바스라지기 쉬운 모양을 나타내는 말

바작바작: 물기가 적은 물건을 잇달아 씹거나 뺄는 소리 섬벅섬벅: 크고 연한 물건이 잘 드는 칼에 쉽게 자꾸 베어지는 소리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할금할금: 결눈으로 살그머니 계속 할거 보는 모양을 이르는 말

조롱조롱(조랑조랑) : 아이가 많이 딸려 있는 모양

상글상글 : 눈과 입을 귀엽게 움직이며 소리 없이 정답게 자꾸 웃는 모양

섬벅섬벅 : 눈꺼풀을 움직이며 눈을 자꾸 감았다 떴다 하는 모양 혹은 눈이나 살 속이 찌르듯이 자꾸 시근시근한 모양을 이르는 말

티적티적: 남의 흠이나 트집을 잡으면서 자꾸 비위를 거스르는 모양.

엉기정기: 질서 없이 여기저기 벌여 놓은 모양

흐슬부슬: 차진 기가 없고 부스러져 헤어질 듯한 모양

담상담상: 드물고 성긴 모양

우럭우럭: 심술이나 화가 점점 치밀어 오르는 모양

구메구메 : 남모르게 톼툼이

휘적휘적 : 걸을 때에 두 팔을 자꾸 몹시 휘젓는 모양

곰실곰실 : 작은 벌레 따위가 한데 어우러져 조금씩 굵뜨게 자꾸 움직이는 모양

허위허위 : 손발 따위를 이리저리 내두르는 모양 또는 힘에 겨워 힘들어하는 모양

즈런즈런: 살림살이가 넉넉하여 풍족한 모양

어긋어긋: 힘없이 천천히 거니는 모양

아롱다롱: 여러 가지 빛깔의 작은 점이나 줄 따위가 고르지 아니하고 촘촘하게 무늬를 이룬 모양

너뚱너뚱: 얇은 천이나 종이 따위가 나부끼어 자꾸 흔들리는 모양

발맘발맘: 한 발씩 또는 한 걸음씩 길이나 거리를 가며 걷는 모양

타박타박: 조금 느릿느릿 힘없는 걸음으로 걸어가는 모양

자작자작: 힘없이 찬찬히 걷는 모양
 둘레둘레 : 사방을 이리저리 살피는 모양
 아귀아귀 : 음식을 욕심껏 입안에 넣고 마구 씹어 먹는 모양
 감실감실 : 사람이나 물체, 빛 따위가 먼 곳에서 자꾸 어렴풋이 움직이는 모양
 재자재자: 자꾸 가볍게 지저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문득문득: 생각이나 느낌 따위가 갑자기 자꾸 떠오르는 모양. 어떤 행위가 갑자기 자꾸 이루어지는 모양.
 상동상동: 작고 연한 물건을 단번에 잇따라 가볍게 베거나 자르는 모양
 념성념성: 계속 넘어다보는 모양 , 나의 것을 탐내어 가지려고 계속 기회를 엿보는 모양
 가랑가랑: 액체가 많이 담기거나 괴어서 가장자리까지 찰 듯한 모양
 을밋을밋: 자기의 책임이나 잘못을 우물우물하며 넘기려고 하는 모양, 기한이나 일 따위를 우물쭈물거리며 잇따라 미루는 모양
 잘파닥잘파닥 : 얇은 물이나 진창을 자꾸 거칠게 밟거나 치는 소리나 모양, 여럿이 다 조금 힘없이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소리나 모양 (가뭇과 질병으로 사람들이 잘파닥잘파닥 넘어졌다)
 후드득후드득 : 깨나 콩 따위를 볶을 때 크게 잇따라 튀는 소리, 멀리서 총포나 딱총 따위가 매우 부산하게 잇따라 터지는 소리, 나뭇가지나 검불 따위가 불뚝을 튀기며 기세 좋게 잇따라 타들어 가는 소리, 굵은 빗방울 따위가 성기게 잇따라 떨어지는 소리
 왁자글왁자글 : 여럿이 한데 모여 잇따라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나 모양
 갈그락갈그락 : 붙어 있는 찌꺼기 따위를 자꾸 끌어내는 소리 (갈그락갈그락 귀지를 파내다)
 고시랑고시랑 : 못마땅하여 군소리를 자꾸 줌스럽게 하는 모양, 여러 사람이 자꾸 작은 소리로 말을 하는 모양

설명하다 : 웃이 몸에 맞지 않고 짧다
 노량으로 : 어정어정 놀면서 느릿느릿
 실없다 : 참되고 미더운 데가 없다.
 지지재재하다 : 이러니저러니 자꾸 지껄이다
 쏠쏠하다(쏠쏠하다) : 품질이나 수준, 정도 따위가 웬만하여 기대 이상이다
 흥흥하다 : 얼굴에 흐뭇한 표정을 띠고 있다
 함함하다 : 털이 보드랍고 반지르르하다, 소담하고 탐스럽다
 찬찬하다(천천하다) : 동작이나 태도가 느릿하다.
 문문하다 : 무르고 부드럽다. 어려움 없이 쉽게 다루거나 대할 만하다

만만하다 : 연하고 보드랍다, 부담스럽거나 무서울 것이 없어 쉽게 다루거나 대할 만하다

짜짜궁이 : 끼리끼리만 내통하거나 어울려서 손발을 맞추는 일 또는 욕신각신 다투는 일
 입찬소리 : 자기의 지위나 능력을 믿고 지나치게 장담하는 말
 너나들이 : 서로 너니 나니 하고 부르며 허물없이 말을 건넌
 무릎맞춤 : 두 사람의 말이 서로 어긋날 때, 제3자를 앞에 두고 전에 한 말을 되풀이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우렁잇속 : 내용이 복잡하여 헤아리기 어려운 일
 황망히 : 마음이 몹시 급해 당황하고 허둥지둥하는 면이 있음
 흔연히 : 기쁘거나 반가워 기분이 좋게
 하릴없이 :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조금도 틀림이 없이
 가없이 : 끝이 없이
 어안 : 어이없어 말을 못하고 있는 혀 안
 추풍선: 가을철의 부채. 철이 지나서 쓸모없이 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또한 여성의 사랑을 잃은 사람을 비유하여 쓰이기도 한다.
 쫄딱: 더할 나위 없이 아주
 타박: 허물이나 결함을 나무라거나 핀잔함
 얼추: 어지간한 정도로 대충. 기준에 거의 가깝게
 이골: 아주 길이 들어서 몸에 푹 밴 버릇

관관오월 : ‘해가 길어서 일하기가 지루한 달’
 바지저고리로만 다닌다 : 사람의 몸뚱이는 없고 바지저고리만 걸어다닌다는 뜻, 사람이 아무 속이 없고 멍틴데가 없이 행동하는 경우
 신산(辛酸) :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생스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곡진: 매우 정성스럽다.
 용렬: 사람이 변변하지 못하고 졸렬하다.
 저간: 요즈음.
 널브러져: 너저분하게 흐트러지거나 흩어지다.
 몸에 힘이 빠져 축 늘어지다.
 가스러져: 잔털 따위가 좀 거칠게 일어나다. 또는 성질이 온순하지 못하고 좀 거칠어지다.
 간드러져: 목소리나 맵시 따위가 마음을 녹일 듯이 예뻐고 애교가 있으며, 멋들어지게 보드랍고 가늘다.
 뉘까려져: 아무렇게나 되는데로 마구 지껄이다.
 되바라져: 그릇이 운두가 낮고 위가 벌어져 쉽사리 바닥이 드러나 보이다. 튀어져 나오고 벌어져서 아늑한 맛이 없다. 사람됨이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지 않고 적대적으로 대하다. 차림이 양전하지 않아 남의 눈에 잘 띄다.

데면데면하다: 성질이 꼼꼼하지 않아 행동이 신중하거나
조심스럽지 아니하다.
뭉뚱그리다: 되는대로 대강 뭉쳐 싸다.
옴팡지게: 아주 심하거나 지독한 데가 있게.
설핏한: 해의 밝은 빛이 약한.
실팍한: 사람이나 물건 따위가 보기에 매우 실한.

‘맥맥하다’ : ‘코가 막혀 숨쉬기가 감감하다, 생각이 잘
돌지 아니하여 답답하다. 기운이 막혀 감감하다’
‘무르눅다’ : ‘과일이나 음식 따위가 충분히 익어 흐무러
지다, 일이나 상태가 한창 이어지려는 단계 에 달하다’
‘푼푼하다’ :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거나 옹졸하지 아니
하고 시원스러우며 너그럽다’
‘데생기다’ : ‘생김새나 됨됨이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못나게 생기다’

바늘 - 쌍 : 24개
금 - 쌍 : 100냥푼. 금 한 냥푼은 37.5g 정도
옷, 그릇 - 족 : 10 벌
북어 - 껍 : 20마리. 예전에는 엽전 열 냥
오징어 - 족 : 20마리.
채소, 과일 - 접 : 100개
조기(물고기) - 두름 : 10마리
산나물-모숨(한 주먹안에 들어올 만한) : 10
생선 - 못 : 10마리
굴비, 고사리 - 갓 : 10개
조기 - 두름 : 한 줄에 10마리씩 * 2줄 (20마리)
오이,가지 - 거리 : 50개
벼 - 담불 : 100섬

금반지 옛 돈
논 닷 마지기
삼베 넉 자
보리쌀 석 되

주먹 - 줌
길: 사람의 키 정도의 길이.
뺨: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을 한껏 벌린 길이.
팔: 두 팔을 양옆으로 펴서 벌렸을 때 한쪽 끝에서 다른
쪽 손끝까지의 길이.

[바람의 세기에 따라]
남실바람 < 산들바람 < 건들바람 < 흔들바람 < 싹쓸바
람

속담

물 건너 온 범 : 한풀 꺾인 사람.
예: 마치 물 건너온 범처럼 맥을 추지 못했다
cf. 물 건너가는 호랑이:제 몸을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
절에 간 색시 :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하는 사람이나
아무리 싫어도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개구리 낮짝에 물 붓기: 개구리가 놀랄 일이 아니라는
뜻으로, 어떤 자극을 주어도 그 자극이 조금도 먹혀들지
아니하거나 어떤 처사를 당하여도 태연함을 이르는 말이
다. 보통 이 말은 꾸짖거나 반성을 촉구하는 말 등을 들
었을 때에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태를
보일 때 자주 사용한다.
(유사) ‘개구리 대가리에 찬물 끼얹기’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성공하고 나서 지난날의
미천하거나 어렵던 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냄
개구리도 웅쳐야 똥다: 뛰기를 잘하는 개구리도 뛰기 전
에 웅츠려야 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급하더라도 일을 이
루려면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함을 이르
는 말
개구리 소리도 들을 탓: 시끄럽게 우는 개구리 소리도
듣기에 따라 좋게도 들리고 나쁘게도 들린다는 뜻으로,
같은 현상도 어떤 기분 상태에서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
짐을 이르는 말
개구리 삼킨 뱀의 배: 보기와는 달리 곳곳하고 고집이
센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냉수 먹고 갈비 트림 한다 : 시시한 일을 해 놓고 큰일
을 한 것처럼 으스대는 것.
중의 빗: 삭발을 한 중에게는 더 이상 빗이 필요 없다
삼발에 쑥대: 쑥이 삼발에 섞여 자라면 삼대처럼 곧아진
다는 뜻으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서 좋은 영향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
가을바람의 새털: 가을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새털처럼
매우 가볍고 곳곳하지 못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가게 기둥에 입춘: 추하고 보잘것없는 가갯집 기둥에
‘입춘대길’이라 써 붙인다는 뜻으로, 제격에 맞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
개 발에 주석 편자: 옷차림이나 지닌 물건 따위가 제격
에 맞지 아니하여 어울리지 않음
마른 나무를 태우면 생나무도 탄다: 안 되는 일도 대세
를 타면 잘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
가을 들이 딸네 집보다 낫다. /
가을 들판이 어설픈 친정보다 낫다
: 가을 들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말.

가을 머슴꾼 비질하듯

>가을걷이를 하고 낱알을 털어도 머슴에게는 별로 잇속이 없으므로 쓰레질도 흥 없이 된다는 뜻으로, 일을 성의없이 대강 해치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을 중의 시주 바가지 같다.

>가을에는 곡식이 풍성하여 시주도 많이 하게 되므로 시주 바가지가 가득하다는 데서, 무엇이 가득 담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을 중 싸대듯

> 수확이 많은 가을철에 조금이라도 더 시주를 얻기 위하여 중이 바쁘게 돌아다닌다는 뜻으로 여기저기 분주히 돌아다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을 바람에 새털 격이다.

> 가을 바람에 새털이 잘 날 듯이 사람의 처신머리가 몹시 가볍다는 뜻.

가을 들판에는 송장도 덩빈다.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덩빈다.

가을 판에는 대부인 마님이 나막신짝 들고 나선다.

> 가을걷이 때에는 일이 많아서 누구나 바빠 나서서 거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을 식은 밥이 봄 양식이다.

> 먹을 것이 흔한 가을에는 먹지 않고 내놓은 식은 밥이 봄에 가서는 귀중한 양식이 된다는 뜻으로, 풍족할 때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면 뒷날의 궁핍을 면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개 발에 주석 편자 :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돼지 우리에게 주석 자물쇠. 거적문에 돌쩌귀.

군자 말년에 배추 씨 장사 : 평생을 두고 남을 위하여 어질게 살아온 사람이 말년(末年)에 가서는 매우 어렵게 사는 경우

공든 탑이 무너지랴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리 없다는 뜻으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함

재주를 다 배우니 눈이 어둡다. : 오랫동안 애써 수고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아니하여 결국은 헛수고가 된 상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 내용이 좋으면 겉모양도 반반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겉모양새를 잘 꾸미는 것도 필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명주 전대에 개똥 들었다.: 겉은 훌륭, 속은 형편없다 씹어도 준치 :본래 좋고 훌륭한 것은 비록 상해도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음

개 꼬리 삼년 묻어도 황모 되지 않는다. : 본바탕이 좋지 아니한 것은 어떻게 하여도 그 본질이 좋아지지 아니함

물은 트는 데로 흐른다. :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되고,

일은 주선하는 대로 된다

장 단 집에는 가도 말 단 집에는 가지 마라. :듣기 좋은 말만 하며 아첨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함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 두부 사 온다. ; 아무리 심부름이나 부탁이라 할찌라도 말이 다정하고 고마우면 비지를 사러 갔다가도 두부를 사온다

벌도 덩이 있다 : 벌을 받을 때도 덩으로 더 받게 되는 법인데, 하물며 물건을 받을 때에야 더 받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여기저기에 빗을 많이 진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갈매기도 제 집이 있다(=까막까치도 집이 있다.)

: 하찮은 까마귀나 까치, 갈매기들도 다 제집이 있는 법이라는 뜻으로 집 없는 사람의 서러운 처지를 한탄하여 이르는 말이다.

독 틈에도 용는 소가 있다 : 독 틈에도 깊은 웅덩이가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든지 남을 속이려 한다는 말이다.

까치집에 비둘기 들어 있다 : 남의 집에 들어가서 주인 행세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개똥에 이슬 내릴 때가 있다

(=취구멍에도 별 들 날이 있다.):

고랑도 이랑 될 날 있다. 몹시 고생을 하는 삶도 좋은 운수가 터질 날이 있다는 말이다.

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 : 앞일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좋은 것만 취하는 경우

망건 쓰고 세수한다: 일의 순서를 바꾸어 함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다. ‘탕건 쓰고 세수한다.’라고 쓰기도 한다.

거미줄에 목을 맨다 (송편으로 목을 따 죽지) :

어처구니없는 일로 몹시 억울하고 원통함을 이르는 말 남의 말도 석 달이다: 소문은 시일이 지나면 흐지부지 없어지고 만다는 말

다 된 죽에 코 풀다: 거의 다 된 일을 망쳐버리는 주책 없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거나, 남의 다 된 일을 악랄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답지에서서는 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시루에 물 퍼붓기: 구멍 난 시루에 물을 붓는다는 뜻으로, 아무리 수고를 하고 공을 들여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비 오는 날 장독 덮었다 : 비 오는 날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장독을 덮는 일인데 그것을 했다고 자랑한다는 뜻으로,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유세하는 경우를 비꼬는 말

비 오기 전에 집이다 : 미리 마련하거나 갖추

비 오는 날 소꼬리 같다 : 몹시 귀찮게 구는 것

비 틈으로 빠져나가겠다 : 행동, 동작이 매우 민첩함

두부 먹다 이 빠진다 : 뜻밖의 실수를 하다, 방심하는 데서 실수가 생긴다.
 나무 끝의 새 같다:머물러있지 못할 위태로운 곳에 있음
 원님 덕에 나발 분다: 남의 덕분에 분에 넘치는 호강.
 큰 북에서 큰 소리 난다: 크고 훌륭한 데서라야 무엇이 나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음.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속담과 반대되는 의미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
 바늘구멍으로 하늘 보기 :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지 못하는 매우 좁은 식견이나 관찰을 비꼬는 말.
 단술에 물 붓기 : 형편이 이미 기울어 아무리 도와주어도 보람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조금의 여유도 없이 버쩍버쩍 없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관형어

밥 위에 떡 : 좋은 일에 더욱 좋은 일이 겹침
 배 먹고 이닭기 : 한 가지 일에 두 가지 이로움이 있음
 가마 타고 웃고름 단다 : 미리 준비를 해 놓지 않아서 임박해서야 허둥지둥하게 되는 경우
 새가 뜨다 : 사람 사이의 관계가 벌어져 소원해짐
 마른 논에 물 대기 : 일이 매우 힘들거나 힘들여 해 놓아도 성과가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

‘변죽을 울리다: 바로 집어 말을 하지 않고 돌려서 말을 하다’라는 뜻으로, ‘변죽을 치다’라고도 쓴다.

자라목 : 보통 사람보다 짧고 발은 목.
 자라목이 되다: 사물이나 기세 따위가 움츠러들다’의 뜻으로 쓰이며,
 자라목 오그라들 듯: 송구스럽거나 부끄러워 목이 움츠러드는 모양’을 뜻하는 말.
 목을 놓고 : 울거나 부르짖을 때 참거나 삼가지 않고 소리를 크게 내어
 속이 마르다: 성격이 꼬장꼬장하다.

생각하는 것이 답답하고 너그럽지 못하다.

허방(을) 쪼다.

1」 발을 잘못 디디어 허방에 빠지다.

2」 잘못 알거나 잘못 예산하여 실패하다

허방(을) 치다 : 바라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다

입(을) 덜다: 음식 혹은 이윤을 나누는 사람의 수효를 줄이다.

입(을) 막다: 시끄러운 소리나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다.

입(을) 맞추다: 서로의 말이 일치하도록 하다.

입(을) 모으다: 여러 사람이 같은 의견을 말하다.

입(을) 씻다: 이익 따위를 혼자 차지하거나 가로채고서는 시치미를 떼다.

어안이 막히다 : 뜻밖에 놀랍거나 이상한 일을 당하여 기가 막히다

어안이 병병하다 : 뜻밖에 놀랍거나 기막힌 일을 당하여 어리둥절하다

녹초가 되다: ‘녹초’는 푸른 풀X

맥이 풀어져 힘을 못 쓰는 상태. 물건이 낡고 헐어서 아주 못 쓰게 된 상태

말을 내다 : (ㄱ)어떤 이야기로 말을 시작하다.

(ㄴ)비밀스러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다.

옹이 지다 ; (ㄷ)나무의 몸매 가지의 그루터기가 박히다.

(ㄹ)손바닥이나 발바닥 따위에 굳은살이 박이다.

골이 틀리다 : 마음에 언짢아 부아가 나다.

결을 두다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가까이할 수 있도록 속을 터주다.

속이 보깨다 : 먹은 것이 소화가 잘 안돼 속이 답답하고 거북하게 느껴지다

산통을 깨다 : 잘되어 가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뒤틀다

마각이 드러나다 : 말의 다리로 분장한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숨기고 있던 일이나 정체가 드러난다.

다리가 길다 : 음식 먹는 자리에 우연히 가게 되어 먹을 복이 있다

발이 잦다 : 어떤 곳에 자주 다니다

손을 뻗치다 : 적극적인 도움, 요구, 침략, 간섭 따위의 행위가 미치다

눈에서 황이 나다 : 몹시 억울하거나 질투가 날 때

손(에) 익다: 일이 손에 익숙해지다.

손(을) 거치다: 어떤 사람을 경유하다.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손질되다.

손(을) 끊다: 교체나 거래 따위를 중단하다.

손(을) 나누다: 서로 헤어지다. 일을 여럿이 나눠하다.

손(을) 내밀다: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구걸하다.

늑손(을) 벌리다 : 도움. 간섭 따위의 행위가 어떤 곳에 미치게 하다. 친하려고 나서다.

손(을) 넘기다: 물건을 셀 때 그 번수를 잘못 계산하여 실제보다 더 많거나 적게 되다. 제 시기를 놓치다.

손(을) 떼다: 하던 일을 그만두다. 하던 일을 끝마치고 다시 손대지 않다.

손(을) 멈추다: 하던 동작을 잠깐 그만두다

발(을) 구르다: 매우 안타까워하거나 다급해하다.

발(을) 끊다: 오가지 않거나 관계를 끊다.

발(을) 들여놓을 자리 하나 없다: 사람이 너무 많아 매우 비좁다. 많은 물건이 질서 없이 놓여 있거나 어지럽고 지저분하다.

발(을) 디디다: 단체에 들어가거나 일의 계통에 참여하다.

발(을) 디딜 틈이 없다: 복잡거리어 혼잡스럽다.

발(을) 벗다: 신발이나 양말 따위를 벗거나 아무것도 신지 아니하다.

발(을) 뺀다[퍼다]: 걱정되거나 애쓰던 일이 끝나 마음을 놓다

귀(가) 따갑다: 소리가 날카롭고 커서 듣기에 괴롭다.

너무 여러 번 들어서 듣기가 싫다. ㄴ귀(가) 아프다

귀(가) 여리다: 속는 줄도 모르고 남의 말을 그대로 잘 믿다.

귀(가) 질기다: 둔하여 남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 말을 싹싹하게 잘 듣지 않고 끈덕지다.

귀(를) 기울이다: 남의 이야기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모으다. ㄴ귀를 재다

귀(를) 뜨다: 동물이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를 알아듣게 되다.

귀(를) 주다: 남의 말을 엿듣다. 남에게 살그머니 알려 조심하게 하다.

귀(에) 거칠다: 하는 말이 온당치 않아 듣기에 거북하다.

귀(에) 익다: 들은 기억이 있다. 어떤 말이나 소리를 자주 들어 버릇이 되다.

코 큰 소리: ‘잘난 체하는 소리’

코가 높다/우뚱하다: 잘난 체하고 뽐내는 기세가 있다.

코를 때다 : 무안을 당하거나 핀잔을 맞다.

코(가) 빠지다: 근심에 싸여 기가 죽고 맥이 빠지다.

코(가) 세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이 세다.

코가 꺾이다: 약점이 잡히다

코가 납작해지다: 몹시 무안을 당하거나 기가 죽어 위신이 툭 떨어지다.

코가 땅에 닿다: 머리를 깊이 숙이다.

코가 비뚤어지게[비뚤어지도록]: 몹시 취할 정도로

코가 솟다: 뽐낼 일이 있어 우쭐해지다.

코가 우뚱하다: 잘난 체하며 거만하게 굴다.

코 값을 하다: 대장부답게 의젓하게 굴다

코 묻은 돈 : 어린아이가 가진 적은 돈

코 빠뜨리다 : 못 쓰게 만들거나 일을 망치다.

오금이 저리다 : 저지른 잘못이 들통이 나거나 그 때문에 나쁜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다.

눈(에) 띄다: 두드러지게 드러나다.

눈(에) 어리다: 어떤 모습이 잊히지 않고 머릿속에 뚜렷하게 떠오른다.

눈(을) 까뒤집다: ‘눈(을) 뒤집다’를 강조하여 속되게 이르는 말. ㄴ눈깔(을) 까뒤집다.

눈(을) 돌리다: 관심을 돌리다.

눈(을) 똑바로 뜨다: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다.

눈(을) 밝히다: 무엇을 찾으려고 신경을 집중하거나 힘을 넣다.

눈(을) 붙이다: 잠을 자다

눈(을) 속이다: 잠시 수단을 써서 보는 사람이 속아 넘어가게 하다

학을 떼다 : 괴롭거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느라고 진땀을 빼거나, 그것에 거의 질려 버리다.

가리를 틀다 : 잘되어 가는 일을 안 되도록 방해하다./ 남의 횡재에 대하여 무리하게 한몫을 청하다.

초로와 같다 : 인생 따위가 덧없다.

아귀가 맞다 : 앞뒤가 빈틈없이 들어맞다./일정한 수량 따위가 들어맞다.

산통을 깨다 : 다 잘되어 가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뒤틀다.

코 아래 진상 : 뇌물이나 먹을 것을 바치는 일

게걸음 치다 : 옆으로 걸어 나가다

가닥을 잡다 : 분위기, 상황, 생각 따위를 이치나 논리에 따라 바로 잡다

변죽을 울리다 : 바로 집어 말을 하지 않고 둘러서 말을 하다

사자성어

방약무인(傍若無人):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

목불식정(目不識丁): 丁자를 보고도 그것이 고무래(농기구의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뜻. 까막눈

어로불변(魚魯不辨): 비슷하게 생긴 글자인 어(魚)자와 노(魯)자를 구별하지 못한다, 무식함.

일문불통(一文不通):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음

진언부지(眞諺不知): 진서(眞書)나 언문(諺文)을 다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잘 모름을 이르는 말.

오월동주(吳越同舟) :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

각주구검(刻舟求劍) :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

간담상조(肝膽相照) :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귀다.

와신상당(臥薪嘗膽) : 거북한 쉼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맛본다. 원수(怨讐)를 갚으려고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뎌

연목구어(緣木求魚) :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아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
 호가호위(狐假虎威) :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다정다감(多情多感) : 정이 많고 감정이 풍부하다.
 구중심처(九重深處) : 겹겹이 문으로 막은 깊은 곳이라는 뜻으로, 임금이 있는 대궐 안을 이르는 말. =구중궁궐.
 만시지탄(晩時之歎) :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화촉동방(華燭洞房) : 첫날밤에 신랑 신부가 자는 방
 와신상담(臥薪嘗膽) : 거북한 쉼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 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 버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독수공방(獨守空房) : ①혼자서 지내는 것 ②아내가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것
 동병상련(同病相憐) :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무인동방(無人洞房) : 임이 없는 외로운 여인의 방
 전전반측(輾轉反側) :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 전전불매(輾轉不寐).
 방촌지간(方寸之間) : 사람의 마음 속, 흉중(胸中)
 풍수지탄(風樹之嘆) : ‘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으나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이 봉양하려 하나 아버지가 기다려 주지 않는다’라는 글귀에서 유래된 말. 효도를 다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여읜 이들의 슬픔을, 부모를 봉양하고자 해도 그럴 수 없는 처지를 한탄하는 것
 혼정신성(昏定晨省) :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로 보아 드리고 이른 아침에는 부모의 밤새 안부를 묻는다는 뜻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함
 반포지효(反哺之孝) :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孝)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란 후에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 효성
 망운지정(望雲之情) :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을 일컫는 사자성어.
 견마지로(犬馬之勞) : 개나 말 정도의 하찮은 힘이라는 뜻으로윗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신의 노력을 낮추어 이른다.
 견마지심(犬馬之心) : 개나 말이 주인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신하나 백성이 임금이나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
 맥수지탄(麥秀之嘆) : 나라가 망한 후에도 보리만은 잘 자람을 보고 한탄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른다.
 마이동풍(馬耳東風) : 말의 귀에 동풍이 불어도 말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남의 의견이나 충고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흘려버림을 이른다.
 주마가편 : 달리는 말에 채찍질, 잘하는 사람을 장려함
 주마간산(走馬看山) : 말을 타고 달리며 산천을 구경한다는 뜻으로,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대충대충 보고 지나감을 이르는 말.
 망양보로 :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친다. 이미 어떤 일을 실패한 뒤에 뉘우쳐도 아무 소용이 없음
 당랑거철 :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
 감탄고토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
 유유상종 :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 모양이나 형편이 서로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것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주며 감싸 주기 쉬움
 부창부수(夫唱婦隨) :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잘 따름. 또는 부부 사이의 그런 도리. 사람의 긴밀한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바늘 가는 데 실 간다’와 의미가 유사함
 좌정관천(坐井觀天) :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 사람의 견문이 매우 좁음
 고진감래(苦盡甘來) :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 ‘태산은 넘으면 평지를 본다’와 유사한 의미
 교각살우(矯角殺牛) :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침.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속담과 배우 유사한 의미.
 침소봉대 :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
 당랑거철 :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경우
 목불식정 : 아주 까막눈임을 이르는 말.
 -가가 뒷다리로 모른다.: 글자를 전혀 깨치지 못하여 무식하거나, 사리에 몹시 어두운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소탐대실 :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
 콩 볶아 먹다가 가마솥 깨뜨린다.: 작은 재미를 보려고 어떤 일을 하다가 큰일을 저지름.
 사면초가 :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
 아랫길도 못 가고 윗길도 못 가겠다.: 이것도 저것도 다 믿을 수 없고 어찌하여야 할지 모름.

- * 설상가상 - 앞친 데 덮친 격이다.
- * 낭중지추 - 주머니 속의 송곳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짐.)
- * 청출어람 - 나중에 난 뿔이 우뚝하다.
- * 유유상종 - 가재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다.
- * 임시변통 -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권다

주마간산 - 수박 겉핥기
하석상대,미봉책,고식지계,임시방편 - 언 발에 오줌 누기
삼순구식 - 책력 보아가며 밥 먹는다 (몹시 가난)
무용지물(無用之物)-‘시루에 물 퍼붓기’
목불식정 -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순화용어

고수부지 ▶ 둔치
나대지(裸垞地) ▶ 빈 집터, 공터
다대기 ▶ 다진 양념
시건장치(施鍵裝置) ▶ 잠금 장치
‘은닉(隱匿)’▶ ‘숨기다’
해태(懈怠) ▶ 게으름, 게을리 하다
땡땡이 ▶ 물방울
레자▶인조가족
잉꼬부부▶원앙부부
팝업창▶ 알림창
스크린도어▶ 안전문
발레파킹▶ 대리주차
노가다 ▶ (공사판)노동자, 막일꾼, 인부
와사비 ▶ 고추냉이
단도리 ▶ 채비, 단속
유도리▶시간/금전/기력 등의 여유
아싸리▶ 차라리.
아예, 그럴 바에는, 그것보다 라는 뜻의 경상도 사투리
무데뽀▶막무가내
쿠사리▶핀잔
로케▶ 현지촬영
견양▶ 본보기
화목 ▶떨나무
노견 ▶갯길
흑태 ▶검은콩
잔반 ▶음식찌꺼기, 남은 밥
진의▶참뜻
저간▶요즈음
제반▶모든
고참▶선임
노변▶길가
역할▶ 구실, 소임
감안▶ 고려, 생각, 참작
납득▶ 이해
만개▶ 만발, 활짝 펴
로드맵▶ 이행안
옵서버▶ 참관인
리스크▶ 위험

테스크포스 팀▶ 전략 팀
제로베이스▶ 원점
폭염▶ 된더위, 불볕더위
트렌드▶ 경향, 추세
스캔들▶ 추문, 좋지 못한 소문
붐▶ 대유행, 성황, 대성황
데드라인▶ 마감
가두(街頭) ▶ 길거리, 거리로 순화
하시(何時) ▶ 언제
시건장치(施鍵裝置) ▶ 잠금장치
하명(下命) ▶ ‘지시’, ‘명령’으로 순화
수순▶ 순서
재래시장▶ 전통시장
전기세▶ 전기요금
6차로▶ 6차선
장애우▶ 장애인

소쿠리(순우리말) : 대나 싸리로 엮어 테가 있게 만든 그릇
가검물(可檢物) : 병균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거두는 물질. 순화대상 아님. 또 그 의미가 반드시 배설물을 뜻하는 것도 아님.

비슷한 용어 (올바른 쓰임)

-개선(改悛) : 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음.
-개선(改善):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거나 착하게 만듦. 예) 제도 개선
-호전(好轉): ① 일의 형세가 좋은 쪽으로 바뀜 예) 경기 호전 ② 병의 증세가 나아짐 예) 병세의 호전
=>‘증상’은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호전’되는 것이다.

-방증(傍證):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주변의 상황을 밝힘으로서 간접적으로 증명에 도움을 주는 증거. 예)방증 자료
-반증(反證):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함, 그런 증거.

-공포(公布): (1) 일반에게 널리 알림.
(2) 이미 확정된 법률, 조약, 명령 따위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 관보(官報) 따위의 정부의 정기 간행물에 게재하여 알린다. 예) 공고(公告), 공시(公示)
-공표(公表):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
‘공개 발표’, ‘발표’로 순화.
=>학설은 ‘공포’하는 것이 아니고 ‘공표’ 또는 ‘발표’로

하면 된다.

수리(修理): 고장나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침. 주로 기계나 집 등 특정 구조를 갖는 것을 고칠 때 사용
수선(修繕): 낡거나 헌 물건을 고침

붙다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공이 붙다/오래되어 붙은 국수는 맛이 없다)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 (개울물이 붙다/채종이 붙다/식욕이 왕성하여 몸이 붙었다)

붓다1
살가죽이나 어딘 기관이 부풀어 오르다 (얼굴이 붓다/울어서 눈이 붓다/다리가 통통 붓다/벌에 쏘인 자리가 붓다)
(속되게) 성이 나서 뽀로통해지다

- 결제(決濟)''처결하여 끝을 낸다'는 뜻으로 증권 또는 대금 수수(授受)에 의해서 매매 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경우에 주로 사용
'결재(決裁)' - 서류

-귀속(歸屬): (1) 재산이나 영토, 권리 따위가 특정 주체에 붙거나 딸림. (2) 어떤 개인이 특정 단체의 소속이 됨.
-귀책(歸責): [법률] 형법상 넓은 의미로 결과를 원인에 결부시키는 판단을 이르는 말. 자유의사에 의하여 행한 행위를 그 행위자의 책임과 결부시키는 일 따위이다.
-귀책사유(歸責事由): [법률] 법률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관적 요건. 의사 능력이나 책임 능력이 있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폐해(弊害): 폐단으로 생기는 해
-피해(被害):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손해를 입음

-해후(邂逅):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뜻밖에 다시 만남
-회포(懷抱):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정(情). ≒포회(抱懷).

-공연(空然)히 : 아무 까닭이나 실속이 없게
-공공연(公公然)히 : 숨김이나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

갯벌 : 바닷물이 드나드는 모래톱. 그 주변의 넓은 땅.

개펄 : 갯가의 개흙이 깔린 벌판. 간조와 만조의 차가 큰 해안 지형에 발달한다. =펄

한창 : 가장 활기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모양
한참 : 상당히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가능하다 : 목표나 기준에 맞고 안 맞음을 헤아려 보다.
사물을 어림잡아 헤아리다.
가름하다 : 쪼개거나 나누어 따로따로 되게 하다. 승부나 등수 따위를 정하다.

점유하다(점거하다) : 물건이나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하다.
보유하다 : 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다.

겨루다 :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서로 버티어 승부를 다투다.
견주다 :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나 목적어로 온다) 둘 이상의 사물을 질이나 양 따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하여 서로 대어 보다.

된바람 : 매섭게 부는 바람. 북풍
마파람: 뱃사람들의 은어.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살바람 :좁은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
 초봄에 부는 찬바람
셋바람 : 뱃사람들의 은어. 동쪽에서 부는 바람(봄바람)
술바람 : 소나무 사이를 스쳐 부는 바람. 소술바람
하늬바람 : 서쪽에서 부는 바람. 주로 농촌이나 어촌에서 씀.

청람: 남이 자신의 글이나 그림 따위를 보아 줌을 높여 이르는 말 (봐 주십시오)
귀중: 편지나 물품 따위를 받을 단체나 기관의 이름 아래에 쓰는 높임말
좌하: 주로 편지글에서, 받는 사람을 높여 그의 이름이나 호칭 아래 붙여 쓰는말

착안(着眼): '눈여겨봄', '살마리를 얻음'으로 순화.
육안(肉眼): ①맨눈. 태양의 흑점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② 식견 없이 단순히 표면적인 현상만을 보는 것.
심안(心眼): 사물을 살펴 분별하는 능력. 또는 그런 작용
혜안(慧眼): ①사물을 꿰뚫어 보는 안목과 식견. 예)아마도 형은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혜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았다.
고안(考案): 연구하여 새로운 안을 생각해 냄. 도는 그 안. 장심(匠心).
방안(方案):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여 나갈 방법이나 계획. 예)실천 방안 / 해결 방안

게재(掲載): 글,그림 따위를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실음
 계제(階梯):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
 개재(介在): 어떤 것들 사이에 끼여 있음

정상(頂上): 산 따위의 맨 꼭대기.
 정상(正常): 상태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 인. 또는 그런 것.
 정상(情狀): 딱하거나 가엾은 상태.

창건(創建): 건물이나 조직체 따위를 처음으로 세우거나
 이룩함 (*용례: 건물 창건 / 신당 창건 / 왕조 창건)
 창제(創製) :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거나 제정함

혼동(混同)
 -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어서 생각함 (예- 잠이 덜 깬
 지 그는 현실과 꿈 사이에서 혼동을 일으켰다.)
 혼돈(混沌)
 - 마구 뒤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음. 또는 그런 상
 태 (예 -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은 가치관의 혼돈을
 초래하였다.)
 혼선(混線)
 -전신·전화·무선 통신 따위에서, 선이 서로 닿거나 전파
 가 뒤섞여 통신이 엉클어지는 일. (예- 목격자들이 제각
 기 다른 말을 하는 까닭에 수사는 혼선을 빚고 있었다.)

주최 : 어떤 일 또는 행사에 대하여 계획하거나 최종 결
 정을 하며 이에 따르는 책임을 진다.
 주관 : 어떤 일 또는 행사에 대하여 집행(실무 처리)함

후원 : 상업적인 목적x 금전x 도움을 줌
 협찬 : 금전적인 면에서 도움

겹질 : 딱딱하지 않은 물체의 겹을 싸고 있는 질긴 물질
 의 커 예) 돼지겹질, 굴겹질
 겹데기 : 알맹이를 빼내고 겹에 남은 물건, 딱딱한.
 예) 이불의 겹데기를 갈다, 베개 겹데기를 벗겼다

웃음가마리 : 남의 웃음거리가 됨. 또는 그런 사람
 웃음꾼 : 남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 또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
 웃음살 : 웃음으로 얼굴에 번지는 환한 기운. 주로, '웃
 음살이 피다.', '웃음살이 벌어지다.' 정도로 쓰인다.
 웃음새 : 웃는 모양새. '웃음새가 곱다.', '웃음새가 예쁘
 다' 정도로 자주 쓰인다.
 웃음바다 : 한데 모인 수많은 사람이 유쾌하고 즐겁게
 마구 웃어 대는 웃음판.
 웃음거리 : 남으로부터 비웃음과 놀림을 받을 만한 일.

맞춤법 및 표준어

● 단수 표준 어미

○	×
-기에	-길래*
-사오니	-아오니*(있 아오니*)
-구먼	-구만*
-ㄹ는지	-ㄹ런지*
-게끔	-게시리*
-건대	-건데*
=거야	-게야*
-이관데	-관대*

부스스(○)
 단출하다(○) 단촐하다(X)
 현재는 개발새발도 맞는 답.
 부조금(○) 부죋돈(X)
 만날(○) 맨날(○)
 안절부절 못했다(○)
 케케묵다(○)
 주뻗하다(○) 쭈뻗하다(○)
 주책없다(○) 주책맞다(X)
 주책을 떨다/주책을 부리다/주책이 심하다(○)
 지루하다(○) 지루하다(X)
 어리숙하다(X) 어수룩하다(○)
 덮혀(X) 덮여(○) 덮이어(○)
 걸어붙이고(○) 걸어부치고(X)
 부쉬질 듯(X) 부서질 듯(○)
 담귀(X) 담가(○)
 등(○) 등어리(X)
 땀전(○) 땀청(○)

난들(○) 낸들(X)
 절체절명(○) 절대절명(X)
 동고동락(○) 동거동락(X)
 혈혈단신(○) 홀홀단신(X)
 풍비박산(○)
 덩굴(○) 녕굴(X)
 사글세(○) 사글세(X)
 까탈(○) 까탈스럽다(X)
 추스르다(○) 추스리다(X)
 목이 메어(○) 목이 메여(X)
 찻값을 치렀다(○) 찻값을 치뤘다(X)
 앓된(○) 애 땀(X)
 빠기다(○) 빠개다(X)
 사귀어서(○) 사겨서(X)
 상추(○) 상치(X)
 찌개(○) 찌개(X)

무청(0)
부추(0) 정구지(X)
고등(0) 고동(X)
시래기(0) 도다리(0)
우거지(0) 전갱이(0)
다슬기(0) 올갱이(X)
매생이(0)
동자개(0) 빠가사리(X)

어처구니(0) 얼척(X)
돌맹이(0) 돌맹이(X)
쌍동밤(0) 쪽밤(X)
덩굴(0) 녕쿨(X)
딸랑(0)
지지리(0)
삐죽(0)
얼른(0) 얼렁(X)
널빤지(0) 널 판지(x) 널판자(0) 널판때기(0)
꿇볼(0) 꿇 볼(X)
금세(0) 금새(X)
배개(0) 배개(X)
후줄근하다(0) 후질근하다(X)
시새움하다(0) 시샘하다(0)

소고기(0) 쇠고기 (0)
서럽다(0) 썰다 (0)
떨어뜨리다(0) 떨어트리다 (0)
아무썽(0) 모썽 (0)
게슴츠레하다(0) 거슴츠레하다(0)
꺼름칙하다(0) 꺼림칙하다(0) 꺼름칙하다(X)
지짐이(0) 부침개(0)
애고(0) : 아이고 의 준 말
머시(0) :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밝혀말하기 곤란할 때
거시기(0)
엔간히(0) : 어지간히. 대충으로 보아 정도가 표준에 꽤
가깝게.
느지막하다(0) 느즈막하다(X)
찌뿌듯하다(0) 찌뿌둥하다(X)
해쓱하다(0) 핼쓱하다(0)
새치름하다(0) 새초롬하다(X) 새침하다(0)
줄곧(0) 줄창(X)
하냥(X) 늘(0)
죄다(0) 옴팡(X)
깡그리(0) 싸그리(X)
얼른(0) 얼렁(X)
깍지(0) 깍찌(X)
남우세스럽다(0) 남사스럽다(0)

된통(0) 되우(0) 되게(0)
걸쭉하다(0) 걸죽하다(X)
제우(X) 겨우(0) : 기껏해야, 고작해야
허투루(0) 허투 로(X)
당최(0) 당채(X)
별의별(0) 별 에 별(X)
어물쩍(0) 어물적(X)

무지(無智) : 꽤. 지나치게. 표준어.
오만(五萬) : ‘매우 종류가 많은 여러 가지. 표준어.
말짱 : 속속들이 모두. 표준어. (말짱 소용 없는)
대뜸 :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곧
되다 : 일이 힘에 벅차다. 표준어

부대(0) 푸대(X) 쌀푸대(X)
고린내(0) 고랑내(X) 코린내(0) 꼬랑내(X)
쿠린내(0) 구린내(0)
여우(0) 여시(X)
구멍(0) 구녕(X)
가물(0) 가웬(0)
아따(0) :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해서 못마땅해 빈정거
릴 때 가볍게 내는 소리. 표준어.

시방(0) : 지금 그 시간
욕보다(X) 방언.
아쭈(0) 어쭈(0) 표준어.

뽀두라지(0) 뽀루지(0)
꼬리별(0) 살별(0) : 혜성
땃돌(0) 뿃돌(0)
여태(0) 입때(0) : 지금까지. 아직까지
도통(0) 도무지(0)
되려(X) 도리어(0)
항시(0) :언제나, 늘
해필(0) 하필(0)
당최(0) 당채(X)
볼썽사납다(0) 볼쌍 사납다(X)
짓무르다(0) 진무르다(X)
널브러지다(0) 널부러지다(X)

베짱을 통기다/튀기다
정답을 맞추다(0) : 비교하다
알아맞히다(0)
내일로 미루다(0) 늦추다(X)
천장이 내려앉았다
얼굴을 비치다
알은채하다(0) 알은척하다(0) 아는 체 하다(X)

기록을 경신하다(깨뜨린다)
계약기간을 갱신하다
문제가 되는 회칙을 개정(改正)하다(바르게 고치다)
맞춤법을 고쳐 책을 개정(改訂)한다
신경을 안 쓰려야 (0) 쓸래야(X)
친구를 사귀어서(0) 사귀서(X)
담배를 피우지마세요(0) 피지마세요(X)
물을 들이켜고 있다(0) 들이키고 있다(X)
메속거리다(0) 메식거리다(X)
몽그적거리다(0) 멩기적거리다(X) 멩기적거리다(X)
괘스레(0) 괘시리(X)
어쭙잡게(0) 어줍잡게(X)

덤터기(0) 덤태기(X)
뉘달(0) 닥 달(X)
등쌀(0) 등살(X)
뒤치다꺼리(0) 뒤치 닥 거 리(X)
해코지(0) 해 꼬지(X)
복사뻘(0) 복숭아뻘(X)
외곶으로(0) 외골수로(X)
엄한(X) 애먼(0)
웬일로(0) 웬일로(X) 웬지(0)
넙따란(0) 넓따란(X)
헬쓱해져(0) 헬쓱해져(X)
끼적이다(0) 꼬적이다(X)
쌉둑(0) 싹둑(X)
하늘의 별따기/ 그림의 떡/ 새 발의 피
옥에 티
개밥에 도토리
아귀다툼(0) 아귀싸움(X)

노블레스 오블리주(0)
랑데부(0) 랑데뷰(X)
말레이시아(0) 말레이지아(X)
새시(0) 샤시(X) / 새시(sash)는 창틀로 순화.
스프링클러(0) 스프링쿨러(X)
밸런타인 데이(0) 발렌타인데이(X)
에어콘(0) 에어컨(X)
테이프(0) 테입(X)
가스레인지(0) 가스렌지(X)
양케트(0) 양케이트(X)
스노(0) 스노우(X)
넌센스(X) 난센스(0)
콩쿠르 장르
팡파르 (0) 팡파레(X)
쿠데타
부르주아

메커니즘(0) 매커니즘(X)
내비게이션(0) 네비게이션(X)
밀크셰이크(0) 밀크쉐이크(X)
엔도르핀(0) 엔돌핀(X)
모르핀(0) 몰핀(X)
카운슬링(0) 카운 셀링(X)
나르시시즘(0) 나르시즘(X)
프랜차이즈(0) 프렌차이즈(X)
트랜스 지방(0) 트렌스 지방(X)
애드리브(0) 애드립(X)
불독(X) 불도그(0)
팜플릿(0) 팜플렛(X)
커텐(X) 커튼(0)
브로슈어(0) 브로셔(X)
타깃(0) 타겟(X)

타이베이(0) 타이페이(X)
포르투갈(0) 포르투칼(X)
베르사유(0) 베르사이유(X)
모스크바(0) 모스코바(X)
칸 (Cannes) (0) 칸느 (X)
블라디보스토크(0)
세비야(0) 세빌리아(X) 세빌리아(X)
타슈켄트(0) 타슈겐트(X)
키르기스스탄(0) 키르기즈스탄(X)
호놀룰루(0) 호노룰루(X)

잘츠부르크(0)
베네수엘라(0)
라스베이거스(0)
로스앤젤레스(0)
밴쿠버(0)
캔자스(0)
싱가포르(0)
드라쿨라(0) 드라큐라(X)

마오쩌둥(0) *중국어에는 ㄝ,ㅈㅅ사용
잔 다르크(0) 장 다르크(X)
콜럼버스(0) 콜롬버스(X) 콜럼부스(X)
르누와르(0) 르노와르(X)
비틀스(0) 비틀즈(X)

ㅈ	ㅉ	ㅊ	ㅡ
eo	oe	wi	eu

ㅊ	ㅊ	ㅊ	ㅊ	ㅊ
wa	wae	wo	we	ui

ㅊ	ㅊ	ㅊ	ㅊ	ㅊ	ㅊ
ya	yeo	yo	yu	yae	ye

범죄에 다름 아니다. → 범죄일 뿐이다.

주의가 요구된다. → 주의해야 한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결과가 말해 주고 있듯이 → 설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모임을 가졌다. → 모임이 있었다.

수리를 필요로 한다. → 수리해야 한다.

외신 보도를 통하여 → 외신 보도로

[[국어문화]]

설총 : 한자의 음과 훈을 이용하여 경전을 읽고 새기는 방법을 발전. 원효의 아들이기도 한 설총은 경전에 밝아 경전에 토를 달아 읽는 구결법을 집대성한 인물. 설총의 업적으로 고려시대 학자들도 그를 받들었다고 함.

세조 : 훈민정음을 보급하고자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많은 불경 언해 자료들을 발행, 보급함.

교정청 : 조선시대 서적편찬 시 교정, 보완을 위해 설치하였던 임시 기구. <소학언해>, <사서언해>를 언해함.

주시경 : 독립신문을 통하여 한글 전용을 실천하였고 국어 문법서를 저술함

최현배 : 우리말을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도록 하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 제정을 주도함

고려가요는 경기체가와 달리 서민적이고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뛰어난 문학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고려가요 중에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 매우 많아 유교를 국시로 받아들인 조선 시대에 와서는 이러한 고려가요의 노래를 남녀상열지사 노래라고 폄하하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글이 없어서 입으로 전해지던 고려가요가 조선시대에 정착될 때 없어지거나 수정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예) 이상곡, 만전춘, 서경별곡, 쌍화점

만전춘 : 유녀생활의 일면을 노래한 고려가요로, 정사내용이 직설적이고 적나라게 표현되어 저급한 노래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나 솔직한 자기표현과 다양한 표현기교로 높은 문학상을 가진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가시리 : <서경별곡>과 함께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고려가요로, 전통적 여인상과 인고의 한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상곡 : 시적 화자인 유녀가 만남을 기약할 수 없는님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내용의 고려가요로 남녀의 애정을 진솔하게 그린 남녀상열지사의 노래이다.

쌍화점 : 남녀 간의 애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유녀의 노래로 정사 감정을 극화한 고려가요이다.

서경별곡 : 대동강을 배경으로 남녀 간의 이별을 소대료한 고려가요이다. <청산별곡>과 함께 문학성이 가장 뛰어난 고려가요로 평가되는 작품이다. <가시리>와 함께 남녀 간의 이별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여성 화자의 자세가 대조적이라는 점에서 자주 비교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가시리>의 여성 화자는 인고와 순종을 미덕으로하는 전통적 여인의 모습으로 제시되는데 반해, <서경별곡>의 여성 화자는 임에 대한 불안과 질투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적극적 여인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유구곡> : 비둘기와 빠꾸기를 통해 잘못된 정치를 풍자한 노래로 남녀 간의 사랑과는 관계가 없는 노래이다. 임금의 입장에서 신하들이 올바른 말을 할 수 있기를 간구한 노래

<속미인곡>: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정철이 지은 이 가사는 <사미인곡>의 속편으로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의 하소연이 주 내용으로 되어있다.

<구지가> : 가락국 건국 신화에 나오는 노래로 신을 맞이하며 부른 주술의 노래이다.

<헌화가>: 향가. 소를 끌고 가던 노인이 절벽의 꽃을 꺾어 수로부인에게 바치며 부른 노래이다.

<선상탄>: 박인로의 가사로 임진왜란 때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전쟁의 비애를 노래한 것이다.

<연행가>: 홍순학이 지은 가사로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견문한 것을 노래한 기행가사

향가가 수록되어 있는 문헌은 고려 시대에 편찬된 <삼국유사>와 <균여전>이다.

<삼국유사>에 14수, <균여전>에 '보현십원가'가 수록되어 있다. <삼국사기>는 신라, 고구려, 백제의 역사를 기록한 정사(正史)이나 행가를 수록하지는 않았다. <악학궤범>, <악장가사>, <시용향악보>는 모두 조선 시대에 편찬된 것인데 향가는 수록되지 않았다. <악학궤범>은 성종 때 성현이 주축이 되어 의궤와 악보를 정리한 음악책이다. <동동>, <정읍사>, <처용가>(고려 때의 것) 등이 수록되어 있다. <악장가사>는 편자와 편찬 연대 미상의 가집(歌集)으로 고려가요와 조선 초기의 악장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용향악보>는 편자와 편찬 연대 미상의 악보집(樂譜集)이다. 고려가요와 조선 초기의 악장 및 무가 등의 악보가 실려 있다.

- 제망매가 : 월명사가 지은 작품. 죽은 누이를 추모.

10구체 향가

- 원왕생가 : 광덕이 부른 노래. 10구체 향가.

극락에 가기를 바라는 불교적인 신앙심을 읊은 노래

- 안민가 : 충당사가 치국안민을 노래한 10구체 향가.
경덕왕의 요청. 임금과 신하와 백성의 도리
- 현화가 : 건우 노인이 수로 부인에게 꽃을 바침.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찬양의 의미가 담겨 있음
- 모죽지랑가 : 화랑의 고매한 인품을 따르던 낭도 득오가 화랑을 추모하여 부른 노래
- 도술가 : 월명사 지음.
해가 둘이 나타나 하나를 없애기 위해 부른 향가

<고산구곡가>- 율곡 이이

윤동주의 고향은 북간도이다.

박인로는 <선상탄>, <누항사> 등의 가사로 유명하고, 서정주는 전북 고창 출신이다.

조지훈의 고향은 경북 영양

김수장은 시조 작가이고

이상화는 <나의 침실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등 쓴 시인으로 대구출신이다.

<일동장유가>는 김인겸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 온 견문을 노래한 가사이다. 조선 영조 때에, 김인겸이 지은 장편 기행 가사로 영조 39년(1763)에 조엄이 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서기로 따라가 보고 느낀 일본의 문물·제도·풍속 따위를 기록한 것으로, 모두 8,000여 구로 되어 있다.

노걸대(老乞大)

조선 시대 세종의 명으로 편찬한 중국어 학습서로서, 저자 및 연대는 미상이며, 고려의 상인이 인삼 등 우리나라 특산물을 말에 싣고 중국 베이징에 가서 팔고, 그곳 특산물을 사서 귀국할 때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다.

명심보감(明心寶鑑)

조선시대에, 어린이들의 인격 수양을 위한 한문 교양서로, 고려 충렬왕 때에 명신(名臣) 추적(秋適)이 중국 고전에서 보배로운 말이나 글 163항목을 가려서, 계선(繼善)·천명(天命)·권학(勸學)·치가(治家) 따위의 24 부문으로 나누어 배열·편집한 책이다.

열하일기(熱河日記)

조선 정조 4년(1780)에 박지원이 지은 책으로, 중국 청나라에 가는 사신을 따라 러허강까지 갔을 때의 기행문이다. 중국 희본(戲本)의 명목(名目)과 태서(泰西)의 신학문을 소개하였고, <허생전>·<호질> 따위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다.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조선 시대에 설순 등이 왕명에 따라 펴낸 책으로, 우리

나라와 중국의 서적에서 군신, 부자(父子), 부부간에 모범이 될 충신, 효자, 열녀들을 각각 35명씩 뽑아 그 행적을 그림과 글로 칭송한 책이다. 세종 14년(1432)에 간행되었으며, 성종 12년(1481)에는 한글로 풀이한 언해본이 간행되었다.

동국정운 : 외래어 표기법

조선 세종 30년(1448)에 집현전 학자들이 왕명에 따라 편찬한 책으로 우리나라의 한자음을 새로운 체계로 정리한 최초의 음운서이다. 당시 한자음이 지역마다 다른 혼란을 바로잡고자 통일된 표준음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표준음에 관한 책. 6권 6책. 활자본. 중국의 운에 관한 책인 <홍무정운>에 대비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바른 음’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자음을 우리의 음으로 표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음. <훈민정음>에 버금가는 중요 유산.

박지원, <열하일기>는 조선 후기 실학자인 박지원이 정조 4년(1780)에 지은 책으로 『연암집』에 실려 있다. 또한 중국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삼중헌 박명원을 따라 연경을 갔을 때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기행문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허생전>, <호질> 등의 단편 소설도 여기에 실려 있다.

김진형, 북천가: 조선 철종 때 김진형이 쓴 장편 기행 가사이다. 함경도 명천으로 귀양 갔다가 서울로 돌아올 때까지의 생황을 읊은 것으로, 모두 1,040여 구로 되어 있다.

박제가, 북학의: 조선 정조 2년(1778)에 실학자인 박제가 지은 책. 청나라의 풍속과 제도를 보고 자신의 의견을 밝혀 쓴 것으로, 실학사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연행록: 조선시대 때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온 사람들의 보고서 또는 기행문을 일컫는 말이다.

김인겸, 일동장유가: 조선 영조 때에, 김인겸이 지은 장편 기행 가사. 영조 39년(1763)에 조엄이 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서기로 따라가 보고 느낀 일본의 문물·제도·풍속 따위를 기록한 것으로, 모두 8,000여 구로 되어 있다.

사씨남정기

조선 숙종 때 서포 김만중이 한글로 지은 소설이다. 처첩 간의 갈등과 권선징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소설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도 맞물려 인현왕후와 장희빈 그리고 숙종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구운몽

조선 후기 숙종 때 서포 김만중이 지은 고대 소설이다.

한중록

조선 종조의 생모인 혜경궁 홍씨의 자전적 회고록으로, 다분히 정치적 색채가 농후한 작품이다. 내용은 혜경궁 홍씨가 지난날 몸소 겪었던 것으로 부군 사도세자가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죽은 참변을 주로 하여, 공적 및 사적 연루와 국가 종사에 관한 당쟁의 복잡 미묘한 문제 등 여러 무서운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칼날을 밟으며 살아온 것 같은 일생사를 순 한글의 유려한 문장으로 묘사한 파란만장한 일대기이다.

박씨전

조선시대의 작가, 연대 미상의 고대소설로, 박씨부인전이라고도 한다. 병자호란의 국치에 대한 반감에서 쓴 역사 소설로, 박씨 부인의 활약상을 주 내용으로 한다. 소설의 주인공인 이시백은 인조반정의 공신이며 호란 때 병조참판을 지낸 실존 인물로 그의 부인은 윤씨였다고 한다.

이생규장전

조선시대 김시습이 쓴 한문소설로 금오신화에 수록되어 있다. 처음에는 살아있는 남자와 죽은 여자 사이의 사랑을 묘사했다. 참혹한 현실을 역설적이며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현실의 비극을 강렬하게 고발하였으며,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문학적 가치와 소설사적 의의를 지닌 작품으로 높이 평가된다.

정극인의 상춘곡

정극인이 지은 조선시대 최초의 가사 작품이다. 조선시대에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자 벼슬을 버리고 향리인 전라북도 태인에 은거하며, 그곳의 봄 경치를 읊은 가사이다.

이이의 고산구곡가

율곡 이이가 지은 연시조로, 작자가 42세 되던 해에 황해 해주 석담에서 제자들의 교육에 힘쓰고 있을 때, 수양산에 들어가 그 풍광을 노래한 것이다.

이황의 도산십이곡

조선 명종 때 이황이 지은 연시조로, 작자가 만년에 도산서원을 세우고 학문에 열중하면서 사물을 대할 때 일어나는 감흥과 수양의 경지를 읊은 것이다.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지은이가 벼슬을 그만두고 섬에 들어가 한적한 나날을 보내면서 지은 작품의 일부분이다. 세상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과 하나가 되어 즐기는 생활이 잘 그려져 있다.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조선 초기에 맹사성이 지은 연시조로, 작자가 만년에 벼슬을 내놓고 강호에 묻힌 자신의 생활을 사계절의 자연

변화와 결부시켜 각 한 수씩 4수로 읊었다.

문수성 : 1912년 3월부터 1916년 6월까지 활동한 신파극단

토월회 : 1923년 도쿄에서 유학생들에 의해 창립된 극단. 신파 운동에 기여하였다.

혁신단 : 신파 초기에 활동한 신파극단. 1913~15년에 <귀의 성>, <은세계>, <불여귀> 등을 공연

극예술협회 : 1947년 5월에 유치진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극단

극예술연구회 : 1931년 7월부터 1938년 3월까지 활동한 연극 단체로 우리나라 연극 발달에 크게 이바지 함

생명파 - 1936년에 창간된 시 동인지 시인부락을 중심으로 서정주, 오장환, 유치환, 김동리, 김광균 등이 참여 했다. 이들은 시적 가치를 삶 자체의 여러 현상에서 찾아 인생파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청록파 -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자연을 바탕으로 인간의 영원과 가치를 성취하기 위한 공통된 주제로 시를 써왔다.

시문학파 - 시문학을 중심으로 순수시 운동을 주도하였던 시인들, KAPF에 반발하여 문학에서 정치색이나 사상을 배제한 순수 서정시를 지향하였다

프로문학파 - KAPF라 하며 프로문학이라 부른다. 이들은 한국의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조직한 대표적인 문예 운동 단체이다.

주지주의파 - 지성 또는 이성이나 의지나 감정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철학적 입장이 문학에도 영향을 미쳐 주지주의파가 형성되었다. 문학에서는 모더니즘의 하위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심훈의 <상록수>, 이광수의 <흙>

선우휘, '불꽃' : 1957년에 나온 소설로,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후 소설들이 전쟁이라는 엄청난 재난 앞에 왜소화된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 '불꽃'은 오히려 전쟁을 겪으면서 주인공이 자신의 참된 삶의 방식을 발견해 가는 과정을 그렸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소극적이고 현실 순응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대로 적극적으로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라는 것이다.

하근찬, ‘수난이대’ : 1957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 통치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당한 수난을 한 가족의 문제로 집약시켜 보여 주었다. 만도가 한 팔을 잃은 것은 일제로부터 당한 수난을 상징하며, 그의 아들 진수가 다리를 잃고 불구가 된 것은 한국 전쟁으로 인한 수난을 상징한다. 이런 수난을 겪은 민족이지만 여기에 좌절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면서 이를 이겨내려는 민족의 의지를 작가는 만도가 아들을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사건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범선, ‘오발탄’ : 1959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전후의 허무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지식인들의 방황하는 모습을 주인공 송철호를 통하여 보여 주었다.

황순원, ‘카인의 후예’ : 1953년에 나온 작품으로 광복 후 북한의 한 지식인이 공산 정권의 지배 아래 정치적 시련을 겪다가 남하를 결심하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념적 대립의 현실과 그에 따라 급변하는 인간심리를 사실적으로 그렸다. 남북 분단의 고통을 주제로 하여 선과 악의 양면성을 강조한 이 소설은 1950년대 한국 전후문학에서 문학사적 의미를 가지는 대표작 가운데 하나

조중환, ‘병자삼인’ : 이 작품은 조중환이 쓴 한국 최초의 희곡으로 능력이 뛰어난 세 아내(여교사, 여의사, 여교장)와 그녀들의 열등한 세 남편(학교 교사, 병원 조수, 학교 회계) 사이의 갈등을 소극(笑劇)의 형태로 다루었다. 여권 신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던 무렵에 나온 이 작품은 여권신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표시하는 한편, 그것이 무분별하게 나타나지 않기를 경계하고 있다.

오영진,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 한국의 극작가 오영진(1916~1974)이 1949년에 발표한 희곡. 8·15광복 후에도 친일 잔존 세력이 활개 치는 사회상 고발. 정의롭고 건강한 질서가 지배하는 새 시대로의 전환에 대한 희망. 1975년 극단 실험이 <인생차압>으로 개명해 공연.

박종화, ‘여인천하’ : 월탄 박종화의 1965년 작 역사소설. 중종시대 배경. 문정왕후, 정난정, 윤원형, 윤임 등 중종시대 때 실존 인물 등장. 깔끔한 필체로 당시 권력층들의 투쟁과 몰락을 묘사하고 있다.

이근삼, ‘국물 있사옵니다.’ : 이근삼의 희곡. 1966년 양광남의 연출로 민중극장에서 공연. 현실적 가치질서를 왜곡 전도시켜 현대 한국사회가 지니고 있는 허점을 풍자한 소극. 독특한 화술과 간략한 무대장치.

황순원- <별> 이 작품은 어린 소년이 누이의 죽음이라

는 경험을 통해 죽은 어머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내용을 가진 일종의 성장소설이다. 특히 이 소설은 어린 소년이 누이의 죽음을 통해 맹목적인 모성고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성숙하게 된다는 S점에서 성장소설의 면모를 지닌다.

염상섭 <표본실의 청개구리>

염상섭의 처녀작으로 한국 최초의 자연주의적인 소설로 평가되는 이 작품은 광인 김창억의 탐방기와 그 후일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은 3.1운동 직후의 패배적 상황과 지식인의 변민을 은유적으로 다루고 있다. 떠도는 젊은 지식인의 고뇌가 음울한 분위기 속에서 묘사되어 자연주의적 색채를 띠었다는 점에서 당대의 문단에 충격을 던진 새로운 경향의 작품이었다.

염상섭 <만세전>

1922년 <신생활>지에 <묘지>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가 <만세전>으로 개제하여 1924년에 단행본 출판. 3·1운동 전야의 암담한 현실을 배경으로 민족의 비애와 그 속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치욕스런 인간 군상을 사실주의 기법으로 묘사.

염상섭 <삼대>

염상섭의 대표적 장편소설. 1931년 <조선일보>에 연재. 서울의 이름난 만석군 조씨 집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아들에 이르는 삼대가 일제 치하에서 몰락해가는 과정을 그림. 당시 청년들의 고민을 사실적인 수법으로 묘사. 3·1운동 이후 대지주의 생태, 그 당시 풍미했던 사회주의자들의 군상이 복잡하게 얹혀 이야기 전개. 할아버지가 죽자 덕기의 집안은 쑥밭이 된다. 젊은 사회주의자들의 상호 불신과 반목, 그리고 그들 내부에서의 갈등과 테러가 인상 깊다.

김동인 <발가락이 닳았다>

김동인의 단편소설. 1932년 <동광>지에 발표됨. 자연주의 경향의 작품이지만 강한 휴머니티가 있음.

김동인 <감자>

김동인이 1925년 1월 <조선문단>에 발표한 단편소설. 가난하지만 정직한 농가에서 예의 바르게 자라난 복녀라는 한 여성이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는 과정을 보여줌. 아름다운 현실보다는 추악한 현실을, 긍정적인 인간성보다는 부정적인 인간성 폭로. 전형적인 자연주의 수법.

황순원의 <학>

휴전선 접경에 있는 마을을 배경으로 한국전쟁 전후에 일어난 사건을 그리고 있다. 친구였던 성삼과 덕재는 남

북이 분단되는 바람에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생활하다가 전쟁 중에 만난다. 성삼이 포로로 잡혀있는 친구 덕재를 호송하다가 학 사냥을 핑계로 풀어준다는 줄거리를 통하여 순수한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이념을 극복하고 싶어 하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황순원 <별> : 황순원이 쓴 성장 소설로 한 소년이 누이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황순원 <카인의 후예>: 광복 전후의 토지 개혁을 제재로하여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간들의 행동 양상과 심리를 객관적으로 그려낸 황순원의 장편소설이다.

선우휘 <불꽃>: 1957년 선우휘가 쓴 중편소설로 3·1운동부터 한국전쟁까지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다. 인간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범선 <오발탄>: 1959년 이범선이 쓴 단편소설. 사회의 부조리와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탐구한 소설이다.

'이양하'는 영문학자이자 수필가이다. 1930년대부터 수필을 발표하기 시작하여 '신록 예찬', '나무', '나무의 위의', '무궁화' 등과 같이 나무의 아름다움이나 나무가 지닌 덕성을 예찬하는 내용의 수필을 많이 발표하였다. 이 밖에도 '푸르스트의 산문'이나 '페이터의 산문'과 같은 잘 알려진 수필 작품을 남겨서 우리나라 수필 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 ① 김진섭: 독문학자이자 수필가로 활동하였다. 대표작에는 '백설부', '매화찬', '생활인의 철학', '명명 철학' 등
- ② 이희승: 대표적인 국어학자이자 수필가, 시인을 활동하였다. '딸각발이'와 '병어리 냉가슴'
- ④ 윤오영: 수필가 '달밤', '부끄러움', '방망이 깎던 노인'
- ⑤ 피천득: 시인이며 영문학자이자 수필가로 '인연', '수필', '봄', '플루트 플레이어'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 이문열 : 이문열의 작품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황제를 위하여」, 「우리가 행복해지기까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과 같이 사회 현실을 대상으로 부조리한 삶과 그 문제 의식을 우화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성향의 작품군이고, 다른 하나는 「젊은 날의 초상」,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등과 같이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문제에 대한 실존적 번민을 자아의 상실과 공동체의 붕괴라는 현실 문제와 연결시켜 형상화한 작품들이다.

- 이병주 : 도쿄 유학이나 학병 및 분단 등 민족적 현실에 대한 체험을 성공적으로 작품화. 「관부연락선」, 「

지리산」 등

- 조정래 : 분단의 현실을 극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그의 작품들에는 한국사회에 전통적으로 자리잡고 있던 계급적 갈등구조가 이데올로기의 대립과정과 맞물려가는 과정이 그려짐. 중요 작품집으로는 『황토』(1974), 『유형의 땅』(1982), 『불놀이』(1983)가 있고, 대하 장편소설 『태백산맥』(1989)과 『아리랑』(1995), 『인간 연습』(2006), 『한강』(2007)

- 최명희 :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에 소설부문에 단편 「쓰러지는 빛」으로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1981년 『동아일보』 창간 60주년 기념 2천만원 고료 장편소설 공모에 「혼불」(제1부)이 당선되어 문단의 주목을 받았고, 「정옥이」(1980), 「만종(晩鐘)」(1981), 「메별(袂別)」(1982), 「주소」(1982) 등의 단편을 발표하면서 「혼불」 제2부에서 5부까지를 1988년부터 월간 『신동아』에 7년에 걸쳐 연재하였다

김동인은 1919년 2월 순수 문예 동인지 <창조>를 창간하였으며, 여러 가지 서구 문예사조를 수용하여 소설을 창작하고, 본격적이 근대소설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그는 연문일치의 확립, 대명사 '그'나 '그녀'의 사용 등을 통해 우리 소설을 본격적인 근대소설로 일신시키는데 기여했다. 김동인은 유미주의 경향에 <광화사>, <광염소나타>, 자연주의 경향의 <강자><배따라기>, 민족주의 경향의 <붉은> 등 다양한 서구 문예사조를 작품으로 발표했다. 그의 작품세계는 이광수의 계몽주의에 맞선 사실주의, 신경향과 내지는 프로문학에 맞선 예술 지상주의와 순수문학운동 전개로 구분할 수 있다.

②염상섭 : 대표적인 자연주의, 사실주의 작가, 대표작으로는 <표본실의청개구리>, <만세전>, <삼대> 등

③김유정 : 주로 농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창작하였으며, 일반인들에게 <봄봄>, <동백꽃>과 같이 희극적 농촌소설이 잘 알려져 있다.

④ 이태준 : <문장>의 동인이며, 완결된 구성법과 함께 한국 현대 소설의 기법적인 바탕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되는 소설가로 광복 후 조선문학가동맹에서 활동하다 월북하였다. 대표작으로는 <가마귀> <달밤>, <복덕방> 등

⑤채만식: 카프에 동조하는 동반자 작가로 활동하다가, 냉소적 풍자문학으로 전환하여 <치숙><탁류>, <태평천하>등의 작품을 남긴 작가이다.

①최서해 : 신경향파의 대표적 소설가. 대표작 <탈출기>는 살 길을 찾아 간도로 이주한 가난한 부부와 노모, 이 세 식구의 눈물겨운 참상을 박진감 있게 묘사한 작품으로 신경향파 문학의 대표적으로 평가됨.

②현진건 : 사실주의를 개척하고 근대 단편소설의 선구자인 소설가이다. <빈처>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으며 <백조>, <타락자>, <운수 좋은 날>, <불> 등을 발표

③박태원 : 한국의 소설가. 1933년 구인회에 가담한 이후 반계몽, 반계급주의문학의 입장에 서서 세대풍속을 착실하게 묘사한 <소설가 구보씨의 1일>, <천변풍경> 등을 발표함으로써 작가로서의 위치를 굳혔다.

⑤염상섭 : 자연주의 및 사실주의 문학을 작품에 보여준 최초의 소설가로 대표적 가운데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한국 최초의 자연주의적인 소설로 평가된다. 아시아자유문학상, 대한민국 예술원상, 삼일문화상 등을 수상

백석: 방언을 즐겨 쓰면서도 모더니즘을 발전적으로 수용한 시들을 발표하였다. <통영>, <고향>, <북방에서>, <적막강산>, <여승> 등을 발표하였고, 지방적·민속적인 분야에 특이한 경지를 개척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백석은 월북 작가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이야기를 통한 서정적인 내용 전달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서정적인 내용을 특유의 서사적인 이야기 속에 잘 담아 내고 있으며 그 안에 자신과 공동체에 대한 통찰을 잘 반영해 표현하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여승’,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흰 바람벽에 있어’ 등의 작품이 있다.

최서해 : 1901~1932. 신경향파 대표 소설가. 대표작 <탈출기>는 살 길을 찾아 간도로 이주한 가난한 부부와 노모, 이 세 식구의 눈물겨운 참상을 박진감 있게 묘사. 신경향파 문학 대표작.

서정주 : 1915~2000. 1942년을 시작으로 친일작품들을 발표했으며, 시<화사>, <자화상>, <귀족도> 등을 통해 불교사상과 자기성찰 등을 표현했다. 대한민국 문학상, 대한민국 예술원상 등을 수상하였다.

유치진 : 1905~1974. 희곡 <토막>, <버드나무 선 동리의 풍경>, <소> 등을 발표한 극작가. 국립극장장, 반공통일연맹 이사, 동국대 교수 등을 역임하고 드라마센터 소장으로 후진양성에 힘씀.

정지용 : 1902~1950. 섬세하고 독특한 언어 구사. 대상을 선명히 묘사. 한국 현대시의 신경지를 열었다. 이상을 등단시키고 조지훈, 박목월 등과 같은 청록파 시인들을 등장시키기도. 김소월과 같은 해인 1902년 충북 옥천에서 출생하였다. 박용철, 김영랑과 함께 <시문학> 동인으로 활약하였고, <향수>, <유리창> 등의 시를 남겼다.

김영랑은 1930년 <시문학>이란 잡지를 중심으로 활동

한 시인이다. 순수한 서정을 아름다운 우리말로 표현하는 데 노력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를 ‘시문학파’나 ‘순수문학파’의 한 사람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는 널리 알려진 그의 대표작이다.

김광균: 1914년 경기도 개성에서 출생하였다. <시인부락>(1936), <자오선>(1937) 동인으로 활동하였다. 시집으로 <와사등>, <기항지> 등이 있고, <추일서정> 등의 작품이 있다.

② 김소월: 평안북도 구성 출생. 오산학교를 다니던 시절 그 학교 교사였던 김억을 만나 시를 공부했다. <산유화>, <진달래꽃>, <금잔디> 등 많은 시를 남겼다. 1934년 32살의 나이로 자살하였다.

④ 박용철: 1930년 김영랑과 함께 <시문학>을 창간하여 시문학 동인으로 활동하였다. 1931년 <월간문학>을, 1934년 <문학>을 창간하여 시 문학 발달에 기여하였다. 대표작에는 <떠나가는 배>가 있다.

이청준

현실과 이상의 괴리, 인간의 내면적 고통을 형상화하는데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 작가이다. 대표작 <당신들의 천국>, <서편제>, <병신과 머저리>, <이어도>

황순원

엄격하고 함축성이 강한 간결체 문장과 치밀한 구성의 단편을 쓴 작가로, 한국인의 한과 토속적인 것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한국인의 근원적인 정신과 관련된 시대적, 사회적 문제에 폭넓게 접근해 온 작가이다.

대표작 <별>, <소나기>, <카인의 후예>

윤홍길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 소외된 현대사회의 도시인들의 삶을 조명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풍자적으로 그린 작가이다. 대표작 <완장>, <장마>,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채만식은 풍자적인 작품을 주로 발표한 작가이다.

대표작 <레디메이드 인생>, <태평천하>, <탁류>

품사	의미	예문
밖(명사)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	합격자는 너 <u>밖</u> 에도 여러 명이 있다.
밖에(조사)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말	공부 <u>밖에</u> 모르는 학생
마저(부사)	남김없이 모두	내 말을 <u>마저</u> 들어라.
마저(조사)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너 <u>마저</u> 나를 떠나는구나.
만(조사)	화자가 기대하는 마지막 선을 나타내는 보조사	열 장의 복권 중에서 하나 <u>만</u> 당첨되어도
만(의존 명사)	동안이 얼마간 계속되었음을 나타내는 말	십 년 <u>만</u> 의 귀국
뿐(조사)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	이제 믿을 것은 오직 <u>실력뿐</u> 이다.
뿐(의존 명사)	다만 어떠하거나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모두들 구경만 할 <u>뿐</u> 누구 하나 거드는 이가 없었다.
-ㄴ바(어미)	(문어체로)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과거의 어떤 상황을 미리 제시하는 데 쓰는 연결 어미	서류를 검토 <u>한</u> 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바(의존 명사)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말	내가 알던 <u>바</u> 와는 다르다.